

**금주일이**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  
하지 못하거든 너저지 친  
족이야 무엇을 바라랴? 목숨이 다할 때에  
친한 이를 믿는 것은 마치 소경이 등불을  
지키는 것 같다 (법규경·도행품 405절)

# 東大新聞

구분: 동대신문사  
주소: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 교육개혁시리즈

#### ⑤ 졸업취재 이수학점 및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

졸업취재 이수학점이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1백40점에서 1백20점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단과대의 졸업취재 이수학점이 하향조정 됐다.

또한 5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이 대학원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깊이있는 학문을 접할 수 있고 우수한 학부학생들의 복수전공과 대학원진학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 졸업취재 이수학점 및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학문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에 따라 학점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1백40점으로 고정된 졸업취재 이수학점이 1백20점 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각 단과대별로 연구를 한 결과 불교대, 경상대, 불교문화대, 상경대의 졸업취재 이수학점은 1백20학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전공취재 이수학점도 졸업학점의 1/4수준으로 낮춰졌는데 졸업취재 이수학점이 1백40학점인 단과 학생의 경우 35학점만 전공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복수전공과 교양과목을 이수해도 된다. 이는 복수전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장치를 마련된 것이다.

2. 대학원 학점 선택제  
학부와 대학원 고정간의 학문적 연계성의 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학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3학년 2학기(6학기)부터 대학원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이며 소속학과장 및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단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학점은 학부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 석사과정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김기영 기자)

## 세계 교육시장 개척 '큰 걸음'

### 지난 23일 L·A '로얄한의과대학' 합병·인수 합의

본교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얄한의과 대학'을 합병·인수, 학교명을 변경해 '동국-로얄한의과 대학'이라는 해외본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해 세계교육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로 첫 발을 내딛었다.

본교와 로얄한의과 대학(이사장=김대영)은 지난 9월 23일 "로얄한의과 대학이 동국대에 기증되는 형식으로 올해말까지 병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교원총회,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2일 본교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석구총장은 △한의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시체해부실, 현의화자료 전시실, 도서관의 신설 및 각종 △동양학연구소 설치 △교수·학생교환 및 각종 △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불교학과, 동양철학과, 한국학과 등의 교류확대방안 모색 △학교 기숙사 설립 △우수교수 유수 및 의류전 확보 △한국 및 여사의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장기부자계획을 밝혔다.

국내대학의 미국한인대학 합병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성사의 의의는 더 크다할 것이다. 지난 5월 대우의 계명대가 사우스 메일로 대학을 병합해 '계명 메일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국내 최초로 발표한 적이 있으나 재단운영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등 최소 7개 이상의 대학들이 본교설립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합병은 WTO가입후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하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개방에 대해 국내에



◇ 위 사진은 '동국-로얄한의과 대학'으로 합병될 '로얄한의과 대학'의 건물 모습이고 옆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합병계획을 밝힌 조진식 장면이다.

서 외국으로 나가는 개방을 활용하는 것에 기초한다. 따라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주장에 미흡하며 불교대학의 특수성과 동양의 사상적 전통에 기초한 '한'의 대학은 경쟁력 강화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교는 지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차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상황과 미국 교육규정을 조사했고 2차 조사단은 9월9일부터 15일까지 1차조사내용 확인과 현지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9월19일 인수기획단(단장=송석구 총장, 위원=조재호 의류원장, 송재운 법

인사부처장, 성용길 기획실장, 김현규 사법대학장, 한진수 학술교류부장)을 구성했으며 9월20일 재단이사 간담회에서 로얄한의과 인수여부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흘뒤인 9월 23일 미국 현지에서 인수기획단은 합의를 교원총회 공동기자 회견을 가졌으며, 10월2일 본교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계 언론에 알렸다.

오는 11월 재단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로얄한의과 병합은 10월 중 교육부의 '해외분교설립인가'와 '해외투자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12월중으로 인수준비를 위한 교수단 파견과 내년 1월의 인수 및 경영등을 준비하고 있다.

로얄한의과 대학은 지난 79년 '세신 한의과 대학'(설립자=김창기)으로 설립된 4년제 대학으로 현재 한국, 중국어, 영어 등 3개국어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학생 수는 2백50명이다. 또한 로얄한의과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백50여명의 졸업생이 미주 등지에서 한의사로 활동중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인 '동국-로얄한의과대학'은 전문대졸이상이나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한 학생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 분당한방병원 개원식 11일

### 첨단 의료장비·편의시설 구비

본교 한의과대학 분당 한방병원(원장=이종철·한의학과 이하 분당병원)이 오는 11일 정식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월 22일 부터 진료를 개시한 분당병원은 대지 5백40여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7개 진료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응급 진료

현대의 침, 전자침,뜸을 이용하여 인체에 발생한 여러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21세기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한방 병원이 되기 위해 최첨단 의료 장비 구비와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을 하고 있다.

분당병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료진료(연인원 1천5백명)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료진료는 매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병원을 재학생이 이용할 경우는 20%, 가족과 동문은 10%의 할인 혜택을 주어지게 된다.

### 보리수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절로 회상했다고 해서 회제가 되고 있다. 요정과 절, 묘한 콘트라스트가 느껴진다. 부처님 당시의 절은 모두 재가신자들의 회사로서 마련되었다. 유명한 기원정사, 죽림정사등이 그 실례이다.

알라파알라사원은 기녀의 이름을 딴 사찰이다.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술집이었는데 나중에 절로 보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절은 신자들의 노력으로 지어졌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자신의 집을 절로 회사하던 예가 많았다. 자장스님의 원명사, 원효스님의 초계사등은 사실 그분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큰 재물을 회사했을까? 대원각이라는 요정의 시가는 1천역을 넘는단다. 그것은 바로 '보시'를 미덕으로 삼는 아름다운 가르침 때문이었다.

'보살지지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그곳에는 보시를 행할때 생겨나는 네가지 공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보시는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을 없애준다고 했다. 내것이 아까우면 남에게 배울 수 없다. 인색한 이는 흠뻑어리를 퍼주고도 배가 아픈 법이다. 그러나 여진 이는 배울수록 넉넉해진다. 둘째, 깨달음의 도구가 된다.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견고한 이기심의 껍질을 쫓아 버리면 생수듯 솟아 오르기 마련이다. 셋째, 보시는 스스로를 기쁘게 할뿐더러 남에게도 통통한 감동을 준다고 했다.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보시만큼 감동적인 일도 없다. 넷째, 그 보시의 인연으로 세세생생 훌륭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한번 배물면 네가지의 훌륭한 일이 생긴다. 이것을 보시사사, 공덕력이라고 한다.

예리 프롬은 삶을 소유와 존재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현대사회의 병은 바로 소유의 노예가 된다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소유에 의해 지배될때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바로 소유의 반대말, 버림의 미학이다.

대원각의 김학미씨는 이제 김보살로 새롭게 태어난 셈이다. 요정정처라는 말을 낳았을 정도로 유명했던 그 주지욕림의 텃밭이 이제 부처님의 향기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대원각에는 갈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김상사에는 나같은 중생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못내 감격스럽다.

### 불교신자 고 조갑동씨

#### 발전기금 1억원기증

불교신자였던 고 조갑동(한의사)씨가 '백혈병 연구를 위한 장학금' 1억원을 학교발전 기금으로 내놓았다.

난치 또는 불치로 불리는 악성인혈과 백혈병에 대한 한의학적인 연구를 해오다 지난 7월 병고로 인해 고인이 된 조갑동씨는 생전 불교신자로서 불교종립학교인 본교의 발전을 위해 내놓기로 결정했다.

학교측에 전달되어진 이 기금은 한의대 연구에 관련된 장학금으로 쓰여진다.

이번 장학기금과 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금액대신 부지로 선정받았으며, 백혈병 연구를 하는 한의대생들에게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 동대신문사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유명들. 목소리는 있지만 학생은 없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유명들과 수업을 합니다. "대졸 좀 부탁해..." 단지는 만마디가 오늘도 유명들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멀어집니다.

### 알림

지난호 '교육개혁시리즈'에서 '③수업제도'를 '④시원제도'로 정정합니다.

## 유령수업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유명들. 목소리는 있지만 학생은 없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유명들과 수업을 합니다. "대졸 좀 부탁해..." 단지는 만마디가 오늘도 유명들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멀어집니다.



# 경제희생 불모로한 재벌개혁 후퇴는 안된다



나성린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시사논단 경제위기와 재벌구조

감하게 위협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적절한 후원아래 이권추구 행위를 하던 재벌구조가 적어도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선 더 나아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경제의 규모는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진입할 만큼 커졌고 우리 기업은 더 이상 싸구려 물건 시장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시장에서 선진국의 대기업들과 정면 경쟁에서 한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예전처럼 우리시장의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재벌들로 하여금 쉽게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더이상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틀이 이 개방경제의 무한경쟁에서 정부가 끼어들어 도와주는 것을 용납치 않게 되었고 따라서 재벌들은 홀로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재벌들은 아직 구식 독과점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기를 못하고 비효율적인 문어발식 경영이나 소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과 상호출자와 같은 손쉬운 방식에 의존하여 지대 추구 행위를 계속하려 하고자 한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전문업종에까지 침입하여 땅고 해업치기식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 한 나라의 경제는 재벌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건강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며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를 포함한 수익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경영합리화와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재벌이 다시 한 번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재벌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재벌구조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하루아침에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10여년 전부터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개혁은 아직 한번도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의 주가지 정기준환과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2~3년마다 소위 체제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개혁의 시도는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종종 단순한 경기 순환적 체제기를 맞아서도 재벌들은 경제위기로만 과장하고 또한 순진한 언론들은 그들에 동조하곤 한다.

올해 초여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도 이러한 구태에 다름없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시도해 온 정부가 신재벌 정책, 노사관계 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오기 무섭게 경제위기로 거세게 밀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고정적 고비용-저효율 구조 때문이고 이것은 이미 10년 이상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 예기치 않은 반도체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 물가지수를 포함한 어떤 거시 경제지표들을 보더라도 재벌들이 외치는 그러한 경제적 위기는 아닌 것이다. 물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0여년 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인데 왜 이날 갑자기 모두들 호들갑을 떤는지 그 의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전에 정부가 재벌과 언론의 경제위기로 합착에 골목하여 재벌의 단계적 개혁을 시도도 해보지 않은채 포기한 것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히 불행한 일이다. 재벌들의 경영이 단계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의 치료없이 다시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지대추구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기처방으로 재벌의 병맥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다.

이제 국경이 없는 완전개방 시대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기업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국내에서 한 업체에 한 대기업만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그 기업이 외국과 거대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해 준다면 문제는 투명한 경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구조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이 되고있는 개혁을 과연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절실히 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 사설

### '동국'의 세계화

금번 본교는 L.A의 로얄한의과대학을 합병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을 발표했다. 교육 개방에 즈음하여 외국대학이 국내에 판을 벌일 경우에 국내대학이 여러모로 타격을 입을 것이 예견되었다. 이참에 우리 대학이 서둘러 외국에 본교를 설립하게될 계기를 마련하여 역으로 외국교육 시장에 '동국'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교육수요자를 찾아나서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대학이 수행해온 대학개혁의 한 가지가 21세기를 지향하는 경쟁력 확보에 있음이 자명하며, 이번으로 우리의 새로운 화두가 진정하게 세계화를 실천하는 혁신적인 경영과 교육의 모색임을 확신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의학만이 아니라 점차 동양학과 한국학 그리고 불교학 등으로 대학의 영역을 광범시하며 명실공히 미주지역의 새로운 종합학교를 건설해나갈 포부를 만만치 않게 세워야한다.

결코 한권학회의 선언적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일의 성격상 비공개리에 추진시켜온 사정은 이해가 되나, 이제부터 좀더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다양하고 치밀한 검증과 전망구축을 통해 시행착오없는 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할 것이다. 물론 '기후'에 준하는 호혜적인 조건으로 합병 인수된다면 하지만 인수과정이나 발전 계획수립과 시행에 있어 투명성 제정의 총괄계획과 내역이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미 우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학다운 건설계획과 불교종향 병원건립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수립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국 백년을 향해 내딛는 의욕과 자신감의 충입은 신명나는 일이며, 그 역동성을 심본 살려 대동국의 미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일이다. 만사무실이라 하여 중요하게 절고년여갈 부분에 미흡하여 권력일실의 티가 남지 않도록 당국자들은 더욱 꼼꼼해주시 바란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합병과 인가를 증속시키는 제반 준칙들이 널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 유형으로 세분되어 있다고들 한다. 또 외국의 재단인수나 재단설립의 요건과 소요재원의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해석 여하 등은 현명하고 냉철하게 해결해나가는 할 문제다. 그리고 명실공히 '동국-로얄한의과대학'의 명칭에 걸맞는 내용성도 시급히 충족되어야 한다. 충실한 교수진과 교과내용과 강의수준 등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인허가 및 면허증 취득의 수혜와 현지 대학인정제도에 원만하게 부응하여 우리 동국의 교세를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후속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건으로 인해 제기된 여러 다양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수용하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추진해온 당국자들의 지혜와 용기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연대사건 이후 한반도에는 또 한번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26명의 간첩이 파견된 이른바 '무장간첩'사건이다.

지난 9월 18일 백시운전사 이진규 씨가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소형 잠수함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면 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현 국군 방위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된 한편 남북관계 악화와 공안정국 강화라는 두가지 난제를 낳았다.

정부는 이번엔 침투한 무장간첩에 대해 요인압살 및 주요시설 파괴의 목적을 띤 무장공비라고 일찌감치 단정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았다"며 이번사건을 '무력도발'로 규정했다. 국회도 여야 연수회담을 바탕으로 23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은 "통일이나 공조니 하면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국민들은 다시 깨달아야 하며 특히 정치인들은 각

### ◆ 진단-무장간첩사건

## 침투목적 논란속 정찰임무 유력 남북관계 경색·공안정국 강화 경계해야

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강경론적인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사건 발생 초기, 잠수함이 훈련 도중 기체고장으로 표류해 좌초한 것이라며 잠수함과 승무원들을 즉시 송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생포된 이광수의 증언을 통해 침투 간첩들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사건발생이후 군의 간첩수색 과정에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침투인원 중 11명이 집단자살을 벌인 대담성에서도 계획된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주장

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침투간첩이 무장공비였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이들은 무장수준이 빈약했고 유일한 생포자 이광수의 경우 대낮에 민가에 접근했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히는가 하면 사실당하 이들이 국군에 노출된 경위를 살펴볼때 이들은 기존의 간첩에 비해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찌감치 간첩도 아닌 무장공비로 지칭, 이번 사건을 명목적인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긴장완화를 기조로 하던 대북정책을 강

경론으로 선화하고 외교적대응을 강구하는 등 남북관계의 급변화를 예고했다.

이와같은 정부의 일련 조치들은 근시안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정부의 강경한 조치들은 나진·선봉지구 투자포럼 참가가 무산된 이후 냉기류를 타고 있던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북측에 있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잠수함이 좌초된 경위가 계획된 정찰임무를 수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임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무장간

첩 파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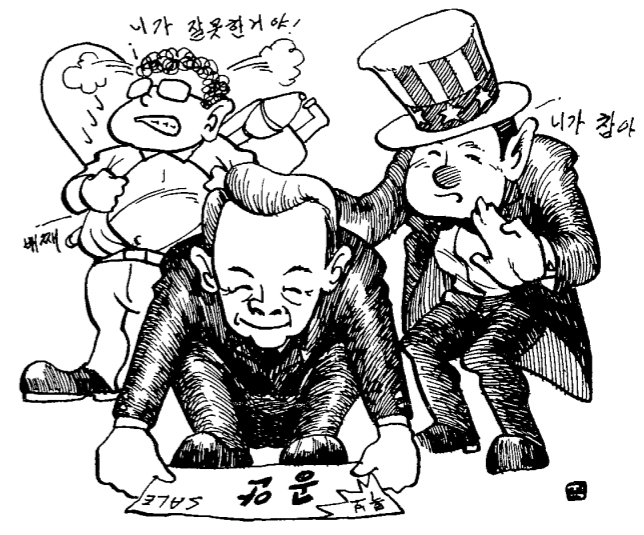
하지만 무장간첩 사건이 초래한 남북간의 대치국면이 남북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경조치들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8월 연대사건 이후 형성된 공안기류에 편승,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 강화에 이용하고 있어 정치, 사회 전반에서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기부법 개정 논란이 한창인 국회에서는 공안시국이 한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 야당의원은 "외교·경제 등 정점 사안들이 안보문제에 밀려 버릴 것"을 우려했다. 또한 전반에 확산될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정치권의 보수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무장간첩사건은 여러모로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희동 기자)

### 통국만평

고대성



삼성전자 브라질지역 전문가 박윤희 대리



브라질에서의 1년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리오 데 자네이로항, 삼바축제의 열기, 끝없이 펼쳐진 아마존의 밀림 - 그리고 또하나 잊혀지지 않는 서른살때의 열풍이 있다. 삼성의 지역전문가로 파견되어 있던 삼성전자 박윤희씨 - 복잡한 업무 때문에 왔으리라고 짐작했던 나에게는 웃으며 대답했다. 브라질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이 1년간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21세기 최고의 남미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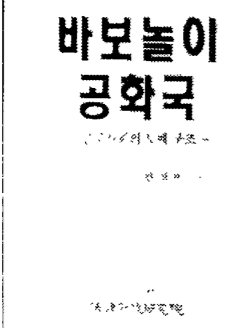
회사원이 된다는 것은 떠나버려져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일거라고 믿고 있던 나에게는, 그의 대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람을 전문가로 키울 줄 아는 회사. 그리고 패기와 정열로 그 꿈을 실현시켜가는 사람들 - 이것이 브라질에서 만난 삼성, 삼성인의 모습이었다.

한국 외국어대학 포포투리아과 3학년 김영희



삼성엔 업무를 떠나 자유롭게 언어와 문화, 관습 등 현지 경험을 쌓아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지역전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평-

### 바보놀이 공화국

-한국사회의 노예 구조

한상범 지음

## 우민화 정책에 높아나는 노예의식 풍자

### 민주공화국 전제로 '합리화·계몽 통한 법치' 제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우민정책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독재를 이룬 군사독재 시대가 지나가고 민주화를 외치며 출범한 문민정부가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금도 국가안보를 빙자한 탄압과 공포 분위기의 조성이 여전하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헌정권이 출범하고서도 많은 민주 인사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공안정국이 수시로 조성된다. 어디 그뿐인가? 성수대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 공사장 등에서 가스가 폭발하였으며 강과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총체적 정치와 경제부실 공사를 평가하여 '사도 공화국'이라고 외국언론들은 떠들어 댔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도 안정과 민주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일제가 패망해 이 땅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일제 잔재가 바로 그 '노하'가 되었다고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에서 자행된 한국민중을 대한 우민화 정책이 이 땅에서 친일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그늘에서 명맥을 이어 율곡에서 이어졌다. 그것은 친일파 박정희의 군정에서 더욱 발판이 굳어져서 우리를 지배해 왔다. 우리는 아직도 나라님의 명령속에서 살고있고 지배세력의 우민화 정치조작에 높아지고 있다. 바로 그 실체를 정면에서 파헤쳐서 우리의 노예의식의 땅을 벗어 아 한다는 당위론을 이 책에서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도 일제 명치헌법의 '통치권자'란 절대권력자의 명령을 풀어내어서 우리를 나라님 앞에서 겁을 먹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을 꼬집고 있다(제1편 제1장). 그리고 바로 우리의 어른들에서 아직도 한자로 우민화 조작을 하는 수구층과 그에 높아나는 일부 바보 지식인을 폭로하고 있다(제2편). 무엇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 법문화의 민주화를 그 책으로부터 시들게하는 저해요인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속시원하게 폭로하고 있다(제3편). 특히 헌법학자답게 헌법정지 40여년의 우민적 왜곡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제4편). 무엇보다 우리가 전봉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세울 수

연 기 영

(법과대 법학과 교수)

### ◇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선언

## 현 노동법 틀 탈피한 개혁 시급 전교조 노개위 개혁안 반발... 1만 교사 공개서명 추진

"교사도 노동자다" 이 말에 분명 고개를 가웃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제'라 하여 '상직'으로 존경받는 교사를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육체적 노동만을 노동으로 이해하고 노동을 천시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노동이란 어떤 대상에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노동의 대상에는 자연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나 인간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숙한 인간인 학생을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회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가치창조 활동인 교육도 사회적 노동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헌법 제32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근로자이며 근로자로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사회적 공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용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제약을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으로는 노동자로서 교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1989년 창립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은 7년 넘게 조직의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합법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89년 전교조가 회원명단을 공개한 이후 7년만에 자신들의 주장을 내걸고 이름을 밝히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9월5일 전국의 현직교사 1천4백64명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하는 선언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교육개혁의 부정이며 진정한 교사개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1차 선언에 이어 23일 5차 선언에 이르러까지 8천8백33명의 동창교사의 뜻을 모아 그들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요구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결정에 따라 발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정권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방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개위는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까지 뚜렷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3일 열린 노동법개정 요청 소위원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이 지난 9월4일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단체로서 별도의 법에서 단결권을 허용하는 안과,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되 교총과 교육회를 복수화"는 2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 노개위와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 진정한 노동법 개혁 의지를 한꺼풀 꺾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OECD 가입도 이사회가

'한국의 노동법 개정 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가입이 연기됐으나 정부는 계속 개혁 노력을 보이지 않고 "경기 침체의 간접적부호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고 노동법 개정이고 뭐고 이루어지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끝까지 치적을 위한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바람은 저버릴 수가 없다.

(고지은 기자)

### ◇ 한의대 사태를 돌아보면

## 더이상 한의학과 약학 논쟁 안된다

뜨겁게 열을 올렸던 한의대 등록거부기 현재는 등록을 90%이상을 상회하면서 수업거부하는 무관하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처럼 한의대생들이 유급·제적을 불사 하더라도 등록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약분쟁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93년 3월 보사부 장관이 약사의 임의한약조제 허용과 의료일원화를 내비치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 정부는 한의계의 심한반발과 2백30여일 간의 한의대생 수업거부를 겪은 후 이들에 대해 △약사들의 한약조제 금지 △한약사제도 실시 △기존의 약사들이 기득권을 인정하여 한약조제 시험실시 △한약학과 설립 △한방의료 보험 확대 실시 △공공보건의 배치 등을 약속했다.

이후 94년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배출을 위한 한약학과 설치' '한약조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한의계에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 집약의료보험 확대 등도 계속 약속하는 등 한의학의 독자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95년 3월 기존 약사들의 한약조제 허용범위와 조제시험의 출제형식과 출제지 등을 놓고 정부와 또다시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적 상황속에 정부가 '조제 지침서'에 수록된 1백가지 처방을 허용하되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반드시 필요한 약재의 가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8월

중에 기존약사들에게 2회의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한다'고 결정을 내려 또다시 한의계의 거센반발을 끌고왔다.

이후에도 종합대의 약대안에 한의학과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해 한의대생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로인해 한의대생들은 수업거부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선언하고 급기야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전국 한의과 대학생 4천여명이 93년 이후 두번째로 유급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96년 2차 한약조제시험은 개정 약사법의 입법조치를 무시한 채 개입약국수보다 많은 2만5천여명의 약사를 응시케해 한약조제약사의 대량배출을 낳았고 한의대 교수가 아닌 약대교수가 출제위원이 되어 상식이하의 국가시험을 치르게 했다.

결국 90%이상의 합격율을 가진 2차 한약조제시험은 한의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민족의학 말살정책이라하여 천여명이 사발하는 등 학생들은 제적불사 투쟁을 전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나타난 한약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국가의 안일하고 미온한 정책과 기득권층의 이득권 싸움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약분쟁의 논란은 더이상 한의학과 약학의 논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함께 한의학의 명확한 위치 정립이 모색돼야 했고, 이렇게 될 경우 한약분쟁의 합의점도 나타날 것이다. (조인선 기자)

### 동약로

## 잔치와 감옥

'이곳은 양심수들의 생활공간인 0.75평의 감옥입니다'



학생회관 앞에 나무판자로 만든 조그만 감옥 모형, 그 내부의 작은 공간을 번거롭게 하나씩 쓸쓸히 자리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고, 본교 구속학생 11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 9월23일 학생회관 앞에 0.75평의 옥방감옥을 설치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4일에 학술제 행사와 관련한 체육대회가 공대 농구운동장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응원으로 행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일감옥을 지나치는 한 학생은 "이것은 오히려 주치와 통행을 방해하는 쓰레기 같다"라며 병당함 반응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구금 양심수는 61명, 35년 이상 수감된 장기수도 8명에 달해 세계에서 장기구금이 많기로 소문난 남아공화국과 국가 불명예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세계인권위

수들은 감옥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사회풍토를 보여주는 듯 교내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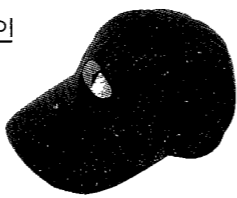
지금 학내에는 단대대학생, 백성예술체 전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양심수들에게 관심을 쏟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이 보인 대부분의 반응이다.

총학생회는 "일일감옥은 증언대와 옥방에 대요청으로 타대학에 빌려준 후 백성예술체전이 시작하는 16일부터 재운영할 계획"이라 말한다. 그때의 일일감옥은 이번과는 달리 총학의 철저한 운영준비와 학생들의 관심으로 이번처럼 쓸쓸히 보이지 않기를 빌려본다. (한상범 기자)



## 또다른 배낭여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또다른 배낭여행 - 극동건설에서 시작하십시오. 세계속에서 건설한국의 이름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극동건설 - 끝없이 넓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더 크게 성장하십시오.



### 대졸 신입사원 모집

지도에 남는 後事로 역사에 남는 건설 - 극동건설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쳐십시오.

모집부서	1. 인문계 상급계, 행정계, 영문계 2. 지리계, 인문계, 기계공학계, 전기공학계, 전자계, 도시공학계, 환경공학계, 산업안전공학계, 교통공학계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 1971년 2월 28일 이전(연령 제한 없음) 2. 1980년 1월 1일 이후(연령 제한 없음) (사서시험 소지자는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4. 학력 또는 인성 5. 기타: 인문계 및 기계공학계는 소지자 주택 6.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없음에 따라 유예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와 필선형 평가 3차 최종면접 및 신체검사
제출서류	1. 인사제출서 및 자기소개서 (용지양식)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서시험) 1부 3.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소지자제) 1부
지원시 교부 및 접수처	1. 기간: '96. 10. 10(수) ~ '96. 10. 18(금) 오전 09:00 ~ 오후 16: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2. 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중구 중부대로 31-1 (우 100-70) 극동건설(주) 인사부 3. 접수처: 서울시 중구 중부대로 31-1 (우 100-70) 극동건설(주) 인사부 (우 100-652) (이메일: 내도착함) (우 100-652)

본격적인 취업시즌이 다가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작년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고 취업자료실의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편집자>

취업과에서 발표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졸업생들의 총취업률 및 순수취업률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5년 졸업생의 총취업률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87.9%, 순수취업률(전체취업률에서 대학원 진학, 유학생, 군입대, 고시준비를 제외한 취업률)은 61.1%로 작년보다 8.8%, 3.3%씩 대폭 증가했다.

경주캠퍼스 역시 총취업률 60.1%, 순수취업률 54.2%로 작년보다 4.1%, 3.9%로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본교에서 처음 실시한 도입면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졸업생들의 취업정보를 알기 위한 적극성과 학생과 교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그리고 3년전전해도 저조한 취업실적을 보인 여학생들의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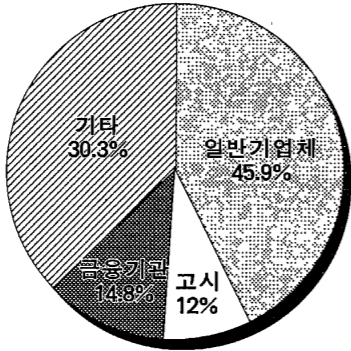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분야별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순수취업 분포는 일반기업체(45.9%)가 가장 많았으며 고시(12%), 금융기관(11.8%)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교직(2.3%), 공무원(1.6%), 언론출판(1.6%), 자영업(1.6%)에 진출, 일반기업체와 고시분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진출비율이 높았으나 그의 교직과 언론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또한 단대별 취업현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술대, 공과대, 경상대, 법대에서

◇ 본교 취업 실태

# 순수취업률 매년 증가 추세 경기침체 여파...조심스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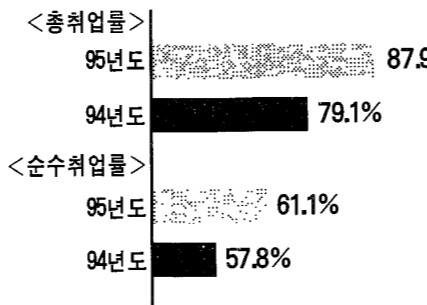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 순수취업 분포도

9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특히 예술대의 경우 68명의 졸업생 가운데 대학원과 유학에 진학한 14명의 졸업생을 제외하고 전원 취업하는 1백%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반면에 불교대, 문과대 및 생자대 경우 총취업률이 80%에 밀리고 있는데다 전공에 맞는 취업선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주캠퍼스에서는 서울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상경대(78.2%)와 자연대(66.7%)등 이공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나 인문대, 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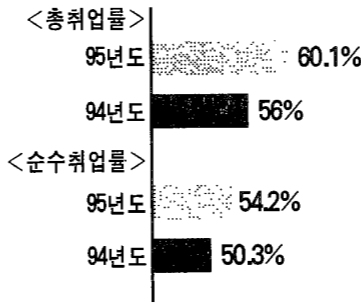


▲ 서울캠퍼스 취업률

대, 한의대, 의대는 순수취업률이 50%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는데 전체 순수취업률이 54.2%에 달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취업률이지만 한의대(15.3%)와 의대(30.0%)의 극심한 취업률 저조와 총체적인 취업진로의 어려움이 겹쳐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취업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순수취업률이 일반기업과 금융계에서 높은 수치를 증가 하는 추세이다.



▲ 경주캠퍼스 취업률

그러나 전공에 관련한 취업진출의 저하, 취업자료실의 운영 미흡등으로 인해 취업대책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줄 시점이다.

대륙이 경기침체 여파로 각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에 대학가에 취업비상이 걸린 현재, 본교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취업률의 증가가 이번해만큼은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전망이란 분석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한상승 기자>

◇ 취업자료실 진단

## 관련자료·편의시설 확충 더 요구돼

"5월에 구입한 30권이 지난 1년간 구입한 책 전부입니다" 라는 취업과 한 관계자의 말에서 취업자료실에 있는 책의 수를 짐작케 한다. 현재 취업자료실에는 5백권의 책이 있고 그 중 신간 단행본은 이 30권 뿐이다. 학교의 위상을 나타내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자료실의 역할이 작다고 지적을 받는다. 취업관련 책을 더 사라고 해도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대응 못가지고 있고 아예 못사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에서 취업자료실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취업자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5월 전문분야별 10종류의 책을 3권씩 45만원에 구입한 것과 월간지 2권을 정기구독하는 것이 취업자료실 1년지출의 전부이다.

이외에 96년도에 나온 책으로는 경제신문이나 리포트등에서 주는 취업정보지와 각종사 홍보지뿐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료실은 정보 전산화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현재 있는 단말기는 한가지 정보를 찾으려면 약 10분 정도 걸려 그나마 사용하는 학생들마저 도중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 9월이나 더 우월한 시스템으로 LAN을 깔면 더 체크스크린으로 바뀔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어떤 대책도 없는 현실이다. 협소한 공간은 물론이고 바닥의 시멘트가 보일정도로 파헤쳐져있고 책 대출도 쉽지 않다.

지난 학기까지는 학생들을 맞이할 대물이 가능했지만 분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번 학기부터 주민등록증을 달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나마 한두권 밖에 남지 않은 책은 대출받을 수도 없다.

취업자료실의 개방시간도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5시까지여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취업자료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박대홍(회계3)군은 "요즘은 취업시즌이라 하루에 40~50명이 찾아오나 원하는 자료 없거나 시설이 나빠 실제 이용하는 학생은 소수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로 저조한 이용률을 들 수 있다.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취업자료실의 낮은 인지도를 들 수 있다. 4학년인 이재민(독문4)군의 "취업자료실이 있는지조차 몰라 취업에 관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다가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는 말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 본교 취업자료실의 협소한 내부(오른쪽)와 달려진 출입구 모습(왼쪽).

개방시간을 늘리고 공간과 시설을 보충하고 정보망을 확충하는 등의 학교측의 재정적인 지원과 남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한 책을 가져가버리는 일부학생들의 의식개혁,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 캠퍼스의 경우 작년에 취업과를 신설하였으나, 물적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번째로 들 수 있는 취업과의 문제점은 '인원의 부족'이다. 상담·지도·취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 인원은 직원들이 감당한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점은 '공간협소'이다. 20여명되는 공간에 '취업과 사무

실'과 '취업 자료실'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점은 취업관련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학관련자료는 40여권 밖에 없으며, 7개 출판사의 취업관련정보지도 시가성이 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하루 50명에서 1백명 가량의 학생들이 상담을 원하고 있으나 전문직상담 인원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 넷 시설 확충 △PC통신을 이용한 입사원서 접수기능 시설 확충 △전문상담요청과 상담실 마련 △인원확충으로 인한 홍보부분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취재부)



## 인터넷 따라잡기(1) 본교 인터넷 서버 이용법



현재는 정보화 사회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은 이미 대학 지성인으로서 그야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본교도 이미 인터넷 초고속망이 구축되어 있고 사용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좀더 활발한 인터넷의 이용과 쉬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호부터 기획 연재를 한다. <편집자>

### 주요 인터넷 서버

1. cakra

의무에서 telnet(원격접속)이용시 외부 접속 패스워드를 물어 볼므로 신중시 이용에 관해 문의를 해야한다. 인터넷 메일 서버로 쓰기에 적당. 대부분의 교수들 인터넷 메일이 등록되어 있다.

2. sciver1, sciver2(이과대학 인터넷 서버)

sciver1  
△인터넷 웹 및 파일 서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 홈페이지 등록이 가능 이과대학 웹 홈페이지 http://sciver1.dongguk.ac.kr로 넷스케이프를 통해 접속 가능

sciver2

△인터넷 이용자 계정 서버. telnet sciver2.dongguk.ac.kr로 접속후, 각자의 ID와 password로 login(계정이 없는 신규 이용자인 경우 guest로 들어와서 메일로 신청). Mail nlsal@sciver2.dongguk.ac.kr로 계정 신청을 할 수 있음. 전자 메일 서비스를 통해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일을 저장 및 받을 수 있음.

△인터넷 비비에스 서버. 인터넷 계정 서비스와는 다른 자체 비비에스. telnet sciver2.dongguk.ac.kr로 login시 ibrain으로 접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비비에스에 들어가게 되며 신규 이용자인 경우는 설명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면 웹, 전리안이나 하이텔등의 이용과 거의 같음.

여기까지 2개의 주요 동양내 인터넷 서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다. 초보자의 경우는 위의 명령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어떤 내용인지조차 잘 모르겠어 찾아나서면 글은 우선, 여러분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nlsal@sciver2.dongguk.ac.kr http://sciver2.dongguk.ac.kr/student/93320310/index.html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

동국대 내의 네트워크 속도는 약 10Mbyte/sec정도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나갈경우 256Kbyte/sec의 전송선이 하나뿐이라, 그 속도는 약 9600모뎀 이하 수준이다. 전송선 확장이 시급하다. 아무리 빠른 전송선이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의 전송선만으로는 학교 전체의 인터넷 이용을 감당할 수 없다.

정성욱  
(SCIVER의 웹 사십·물리3)

# 우린 해태에 왔다!

공제 21기  
코리드 김지현

## 신입사원 모집안내

**식품에서 전자,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신하는 21세기 해태로 오십시오. 도전과 패기의 세계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1. 모집부서 및 회사**

종사 직군	모집회사	모집과	의용계	응시자격
연차	(주)한진	생산/영업/인사/개발	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1. 동양대/이과계 전공(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필수(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1997년 2월 졸업예정자
유종	(주)해태식품	생산/영업/인사/개발	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2. 1966.1.10후 출생(1997년 2월 졸업예정) 학사 또는 석사
무직	(주)해태식품	생산/영업/인사/개발	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3. 해태그룹 취업(1997년 2월 졸업예정) 학사 또는 석사
사원	(주)해태식품	생산/영업/인사/개발	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4. 해태그룹 취업(1997년 2월 졸업예정) 학사 또는 석사
선보	해태식품	생산/영업/인사/개발	기계/전자/산업공학/전산	5. 해태그룹 취업(1997년 2월 졸업예정) 학사 또는 석사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및 인성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지원서류**  
가 입사지원서(양식 소정양식) 2부 (우편접수는 필히 수험료 동봉)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다 공인기관 TOEIC 성적증명서(제출가능자에 한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6.10.9(수) ~ 10.15(화) 09:00 ~ 17: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일요일 제외)  
나. 지역별 원서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해태 그룹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0 310 8/0	(02)716-8811
광주	해태 식품사	목시, 목구, 목정로 246-1	(051)314-6511
광주	해태 식품사	대우시, 대우로 42-221	(053)968-5760
전남	해태 식품사	광주시 북구 양정로 408-2	(082)571-2316
전북	해태 식품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71 238-3	(053)211-2551
광주	해태 식품사	광명동, 광명로 405-5	(031)745-9445
충청	해태 식품사	대전시 동구 가동로 424-1	(042)287-0227
제주	해태 식품사	제주시 동부 1영동 289-3	(064)431-1611

다. 접수처: 해태그룹 접수처 (마포구 다보당길) 문의전화: (02)716-8811, 717-57765

**5. 기타**  
가. 국가보훈 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에 의거 우대합니다.  
나. TOEIC 성적우수자 및 이공계 사직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소인내에 한합니다.

**해태그룹**

공제 21기  
해태전자 임직원

▶ 수습기

# 희망을 일깨우는 부끄러움으로 나를 연다

## 후회없는 삶을 위해 재촉하는 발걸음



◆ 심미선 기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을 한다. 많이 고민한 후에 결정했음지라도 대부분 후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이다.

지난 겨울 대학입시라는 선택의 결과에 좌절할 후 노력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마침 그 무렵 난 신문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난 조금의 주저함 없이 신문사를 선택했고 훨씬 달아오르는 열정과 넘치는 패기가 있었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6개월의 수습을 끝내는 지금 내 선택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해 본다. 신문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

는다고, 시간낭비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신문사를 선택하기에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에 대한 미련을 감추곤 했다.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능력의 한계,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고민까지는 접어 둘 수 있었지만 늦은 귀가에 대한 결론없는 부모님과 갈등은 건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취재할 때의 호기심, 기사 작성과 조판 후의 성취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넓어지는 안목, 그리고 동기, 선배와의 끈끈한 정이 나를 무난히 탈수습까지 이끌었다.

많은 것보다 일흔게 많은 단순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내 선택에 들인 나의 노력에 대해 만족은 아니더라도 잘 견디어 왔다고 나를 칭찬할 수 있기에 내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다.

그러나 지금 내 만족의 정도를 떠나 내가 과연 대중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묻게 된다. 또 정기지라는 책임감이 주는 두려움에 잠깐 좌이고 약해지는 나를 본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못할 일이 있었는가.

무지가 주는 용기가 아닌 확신과 신념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이 사회의 잘못을 찾아 지적하고 고쳐가기 위해 오늘도 난 풍악의 구석구석을 뛰어 다닐 것이다.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문과대 영문과)

## 독자안에 내가 있기에 진정 행복



◆ 조선희 기자

지난 6개월. 무심코 내면지는 '강히 수습이...'란 말에 상처받고, '수습이니까...'로 용서받던 시절. 반복되는 딱딱한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마찰들에, 내 주위의 것들로부터 고립된다는 생각이 고민하던 시절. 온세상의 짐을 다 짊어준 것처럼 비물거리고, '힘들다'는 말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사용하는 시절.

그 시절의 울분(?)을 가슴속에 삭이며 기다린 순간. 그건 바로 부활의 날 탈수습.

근대 웅변. 지금 내마음은... 겨우 조적이란 것이 지난 위계에 익숙해지고, 환영시이란 근사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가는 지금, '행'이란 표현이 준 거부감이 친근함으로 다가

오고, 지난 학기의 초조함에서 조금은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내게 '정기자'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은.

3월. 난 동경과 환상만으로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고 당시 내가 생각하는 신문사란 그저 본대로 기사만 쓰면 되는 집단(?)이었기에 선배들의 '어렵다'란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 아니 그 소속감에 자만했고 내가 쓴 기사를 보는 누군가가 나를 동경하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착각임을 알았을 때 나의 방향은 견줄 수 없이 컸고 이일로 한학기 내내 고민했다.

난 내자신을 찾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신문사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동대신문을 읽는 독자들을 염두한 채 기사를 쓰고 있다. 많은 이들이 동대신문에 관심이 없다 해도 상관없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 동대신문을 꼼꼼히 읽는 이가 있고 그속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기에.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보내며 쓰는 내 일이다.

가식도 과장도 기교도 없다. 그저 내 마음속 생각들을 담담히 서술했다. 이제 난 내 취재수첩에 적힌 '수습'이란 글자를 지울려고 한다. 그리고 기자란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찾기'의 진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문과대학 불교학과)



◆ 김경미 기자

'겉질'은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깨어야 할 틀이 될 수도 있다.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겉질을 깨고 앞에서 나온다.

내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문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수습 기간동안 끝을마를 처음 배우려는 갓난아이처럼, 말을 시작하려는 어린 아이처럼 내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이 약간의 놀라움과 적응하기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밤새 고민하며 쓴 원고를 다시 되돌려

## 두려움의 겉질을 벗고 새롭게 출발

받고, 수없이 고치면서 나만의 글이 아닌 여러 사람의 기사를 쓰는 방법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어쩌면 지난 기간동안 괜한 오기로 도박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과 끊임없는 노력들을 신문사에 쏟으면서 다른 일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방황하면서, 하지만 과할듯, 친구들에게 소홀해지는 아쉬움 뒤에 신문사에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랑하는 것의 소중함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깨닫게 되었기에 후회는 없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그 동안의 용알이와 시행착오, 고민, 방황을 거들삼아 조금씩 하지 말고 노력해 나간다면 조금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나에게 있어 겉질은 두려움인 것 같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회의 틀, 남들이 나에게 갖는 기대, 그리고 변화를 바라면서도 과연 올게,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제 신문사에서 겉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누구에게나 겉질은 단단한 것이다. 그러나 겉질을 깬 생명체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것을 깨려는 의지보다 더 단단할 수는 없다.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나오는 자는 눈부실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순간의 주춤에 굴하지 않고, 쉽지 않기에 더욱 가치있는 일임을 되새기며, 겉질을 깨고 어둠을 극복하며 또 다른 시작의 발을 디뎌본다. (문과대 특문과)

## 치열한 현실속에서 당당한 날개짓을...

오리가 하늘을 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봤다. 그러나 상상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오리는 날지 못한다.

왜 오리는 하늘을 날지 못할까. 분명 날개 달린 동물이라면 비약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앞에서 깨어난 새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한다. 거기서 실패하면 땅으로 곧두 박질쳐 죽음으로 이어지고 성공하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오리는 그 본능조차 깨닫지 못해 자신의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 삼과 죽음, 성공과 실패 그런 기회조차 오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리고 싶지는 않다. 날개짓을 하며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도전할 기회를 갖고있는 새이고 싶었다.

동대신문 기자. 그것은 내가 선택한 날개짓이었

고, 이젠 탈수습을 하며 정기지의 문턱을 밟았다. 수습이었던 기간보다 더 많은 날이 남아있다. 수습이었을때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내게 남아있고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도전이고 본능이다. 취재하고 기사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면서 나는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살아야 하니 후회도 해본다. 아쉬운 것이 많았기에...

세계사를 누구도 도외시하지 않는다. 저혼자 힘으로 날개짓을 하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바로 그 도약의 시기에 있는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2만 동약인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문, 언론은 신바람에 둘러싸인 매개체들이 아니다. 환상의 길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인 것이다. 그 치열



◆ 최정식 기자

한 현실에 나는 당당히 나서서 부딪쳐야 한다. 본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한마리 새가 보호막에서 나와 힘껏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 새는 비록 튼튼한 날개와 명석한 머리를 갖고있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과 주위의 것들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신뢰속에 험난 바깥세계에서도 굴하지 않고 창공을 날며 자신의 신념과 자유를 저 하늘에 높게 펼칠 것이다. (문과대 특문과)

## 정상향해 힘껏 돌진하는 표범이 되고파



◆ 이해경 기자

누군가가 말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때 삶의 욕구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그러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산을 오르고,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어슬렁 거리는 하이에너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너!

나는 하이에너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를 올라가 굶어서 일어먹는 본능인 칼리만자르의 그 표

범이고 싶다.

-칼리만자르의 표범 중에서- 어쩌면 산을 오르는 이의 마음이나 신문사 생활을 하는 이의 마음은 같은 것일게다.

밥을 요박세워 쓴 자신의 기사가 지면에 붙어져 나올때, 그때의 환희를 잊지 못하기에 이 고된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네가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

몇 모르고 뛰어든 나에게 6개월의 신문사 생활은 마치 그 답을 가르쳐 주려는 듯 나를 다그쳤다.

신문사란 곳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했고 그 시련에 나의 의지와 신념이 승부리째 흔들렸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재무장 시켜야 했고 그런 시련작용을 거머쥐어

은 길이 이런 어엿한 정기지란 명칭을 입밖에 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작이다 생각했던 수습기간의 끝에서 정기지라는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이제 내가 살아 있다는 흔적을 분명하게 남길 기회가 주어졌다.

정론직필(正論直筆).

이제 난 이 절대절명의 모토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며 나에게 새로운 날개가 돋고 있음을 느낀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순간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며 내내 해져서는 내 자신을 추스리며 끊임없는 나와와 싸움에서 승자가 되는 그 칼리만자르의 정상에서 서서 눈덮인 설경을 마음껏 찬미하겠노라.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正道경영·초우량LG  
도약 2005

# 나의 본적은 지구市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② 글로벌 인재 육성 편

LG는 '로컬 매니저'에서 '로컬 비즈니스 리더'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에 걸친 3단계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각과 능력을 지닌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줍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맨으로 클 수 있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TEL: 3773-2185 FAX: 3773-0588

LG는 양과 질 모두 최고를 이루어, 최고의 고객심동 브랜드를 만들어 최고의 보람있는 직원이 되기 위한 도약 2005의 실현 사업중 하나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 '박노해 문화제-참된 시작'을 다녀와서

#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양심수 석방 기원하며 한마음 되어 노래

지난 4일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 어느새 어둠이 찾아오고 조저녁 별이 하늘에 하나 둘 떠오른다. 노천극장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약 1천여명의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무대 위를 관심과 의지가 담긴 눈으로 바라본다. 드디어 눈부신 조명이 빠르게 움직이고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이것이 바로 '박노해 문화제-참된 시작'을 여는 처음의 소리였다.



◇ 지난 4일 한대 노천극장서 열린 '박노해 문화제-참된 시작'. 사진은 두번째 손님으로 나온 '노래를 찾는 사람들'

한양대 총학생회(회장=이경석·경제4)가 주최하고 민주주의 인권위원회와 민족문화작가회의 등이 후원한 이 행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박노해 시인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내는 자리였다.

한양대 록그룹 '보헤미안'의 광적인 이면에서도 폭발적인 노래로 시작되는 '동지'의 노래 '동지에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꿈'에서, 윤도현의 '꺼내라!', '꽃다지'의 '한결같은 사랑' 등으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와 춤을 따라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모습을 만들었다. '박노해 문화제'의 주인공은 출연진이 아닌 바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열광적인 시인으로 알려진 시 작한 박노해 시인의 변명은 자기평으로 57년에 전라남도 함평에서 출생했다. 76년 선린상고 야간부를 졸업한 그는 그후 안양에 있는 안남운수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부당판해고를 당했다. 그런 그에게는 노동운동이란 절실한 과제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84년 5월 첫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낸 그는 그후 서울 노동운동연합에서 활동했으며 89년 11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하 사노맹)'의 결성을 주도 배려하는 이유로 그 후 수배를 받게 된다. 결국 그는 91년 3월 10일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배'라는 이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6년째 복역중이다. 그런 중에도 그는 93년 6월 두번째 시집 '참된 시작'을 펴내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노맹 사건으로 함께 4년간 복역했던 그의 아내 김진주씨는 이번 행사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동자들까지도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롭고 보편적인 행사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문화행사 등을 준비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노해 시인은 좀 수척해지기는 했어도 건강은 좋은 편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잡혀가더라도 자신이 하고픈 말을 겁없이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한푼의 돈도 받지 않고 노래를 부른 출연자들, 그리고 박노해 시인과 수많은 양심수들을 잊지 않고 이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있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그날은 멀지 않은 것 같다. 박노해 시인의 이 말처럼...

살점에는 밤바람이 돌아왔고 그 겨울 내내 뼈아픈 침묵이 내면의 총을림으로 맥물어져갔다 모두들 말이 없었지만 이 긴 침묵이 새로운 탄생의 첫발음을 굳게 밟고 있었다 그해 겨울, 나의 패배는 참된 시작이었다.

(김상만 기자)

◇ 한글 창제 5백50돌을 맞아

## 비속어·신조어 등 우리글 오염 심각

## 상표와 방송매체 통해 대학가 급속히 유입

## 한글 소중함 알고 바른 언어생활 실천해야

올해는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백5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따라서 올해 맞아 한글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역사를 재경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온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은 오백백년들을 맞은 지금까지도 그 동안 한자에 눌러 제대로 주된 행사를 하지 못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또 정부가 내세우는 세계화라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영어 조기교육까지 뒤섞여 그야말로 우리 말글 생활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 말글은 우리의 정신이고 민족의 슬기가 담긴 값진 보배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암울했던 때에 우리 말글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목숨까지 바친 것은 우리의 얼만은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중국에서조차 골치를 앓고 있는 한자 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일괄성 없는 교육정책,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들이 한글 전용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우리 한글은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거의 모든 소설이나 잡지들이 한글로 가로 쓰기를 하고 있고 일간신문들도 큰 변화를 보여 한글 전용 쪽으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를 우리글은 우리가 갖고 닦아야 한다. 날마다 말하고 쓰고 말글살이 속에서 고마움을 깨닫기보다는 되레 업신여기고 일탈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은 또 하나의 걱정

거리다. 특히, 대학가에서 번지는 언어의 혼란과 말의 폭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 없이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극적 불명의 비속어, 무분별한 신조어, 준말 등은 우리 말글을 오염시키고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어 선도해야 할 대학생의 신분으로 바른 말글살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 문화는 점점 혼란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코미디 프로나 토크쇼 등에서 인기 위주의 신조어가 방송 매체의 공공성을 망각한 언어 생활의 공해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오히려 대학가의 유행어로 쉽게 퍼져 빠르게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말글의 사랑과 순화운동은 일상 생활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한다. 곳곳에 잘못 쓰인 간판이나, 의류의 상표, 신문이나 방송의 잘못된 글들을 다듬고 고쳐 주는데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계도하고 실천한다면 빠른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한글을 가장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존중되어야 하고 계승되어야 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부르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에 발맞춰 잘못된 한글의 역사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은 새로이 국경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한글 반포 5백50돌을 맞아, 겹치려의 말로만 한글 사랑이 아닌 진정한 내말 내글의 사랑 운동으로 국민이 다함께 슬기를 모아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유운상  
(한글학회 사무국장)

## 문화적 복고

어떤 사람도 조금의 안정은 원한다. 아무리 일탈적인 사람도 험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환경의 외피는 가지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단 한칸 내 집이면, 아니면 동고동락을 같이 할 어떤 사람이면, 아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온하고 고상하게 살기에 가장 확실한 보편적인 돈이면,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모든 것이 '권력적'이다. 권력은 달콤하고 편안하고 느긋하고, 배제하고 구분지으며 우리가 그 선안에 안주하는 한 다른 불안 거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한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교생을 했다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어떤 강력한 기제도 가져본 적이 없는 피권력자로서의 피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을 자살행위라 생각하고 그 선을 허무는 자들은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가 잘되는 꼴을 참지 못하는 불순 분자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생득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불안정은 삶을 위협하는 참을 수 없는 극도의 죄악이다. 우리는 안정을,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장해 줄 어떤 강력한 것을 원한다. 우리는 그 실사정, 속내나 어떻게 상해있던 말았던 행복한 가정, 강력한 국가라는 미덕에 대한 환상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순수하고 투명한 안정이 존재하는가? 허투어도 없었던 번씩 변하는 사람 마음처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관계, 사회 또는 늘 유동적이고 대립하고 맞선다. 사회의 평화와 안정은 이런 대립을 배제하고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확일화 과정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사회적 안정적 재생산, 더 이상의 위기를 기피하려는 우리의 심리가 만들어 온 결과는 가장 크게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정권이다. 선거 때만 되면 벌어지는 무장공비의 침투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이적 세력의 적발은 곧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신세대 논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90년대라고 별반 달라지지 않아 다양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하나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정당함에 늘 패배해온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게다가 이즈음은 오래전에 '전설의 고향'과 함께 사라진 한강이 대중문화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보통사람들'과 함께 사라진 대가족의 미덕이 벌써 몇 년째 시정됨을 보증하는 우수한 상품으로 우리 앞에 환생했다. 70년대에 사라진 노출 단속이 다시 등장하고 '아들'과 '딸'의 누추했던 시절에 대한 회고와 '동기간', '젊은이의 양지', '첫사랑'으로 제목을 달리하며 화려하게 리바이벌 되고 있다. 복고는 보수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은 늘 60년대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정치는 늘 박탈 때로 머물러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못먹고 못살면 시절을 회고하고 복한의 도발을 '초당적 대응'으로 응징해야 할 뿐.

최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북한의 북핵 발언으로 한껏 엄숙해진 사회분위기 그 하나뿐 그러나 역사나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도박과 군대기, 유흥과 패싸움을 보며 생각한다.

더이상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할까? 불안정을 끌어안지 않는 한 겹 겹의 안정이 과연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함을 공적인 영역으로 치부를 드러내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싸움인가? 무장공비가 출현했다는데 휴가 나와 돌아가지 싶어하는 저 사병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박준희  
(한글학회 연구위원)

### 매아리

### 썰렁썰렁

▲ 카페에 두세사람 모여든다. 서로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무심히 오가는 말들이 가벼워 이내 실종 나버린다. 생존을 가지고 싸울꺼라도 대상도 없다. 주위엔 기본 의식주가 충만하다. 이런 허전함을 한층의 쾌락으로 채우기 위해 발버둥친다. 절대적인 화두가 사라진 것일까. 못 찾은 것일까. 없는 것일까 ▲어디로 튀지 모르는 어디에도 소속없는 'X'란 딱지를 달고 등장한 90년 세대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문화사적으로 거대한 정표를 남겼다. 화두가 사라진 공란을 '썰렁'으로 채운(?) 것이다. 흔히 웃음의도가 빛나갔거나 만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쓰이는 '썰렁'의 탄생이 이런 많은 문화 소재들로 쓰이고 있다. 유머계에서는 당당히

사의 의무가 사라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감각으로 포장한 무뎠무뎠(?) 배부른 허무주의를 상품으로 내놓았다. 허무주의는 '썰렁'한 것을 '그냥'이라는 동기에서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목표의 상실, 대안의 부재 허무주의의 늪에 빠져들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명분없는 논리에도 교묘히 이용된다. 오늘도 뒷집고 때오르는 해를 보며 새국정을 계획하는 한 역세게 은둔은 어른은 갑자기 령자 생각났다는 듯이 비서에게 거창하게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고 한마디 한다. "깜짝 놀랐지"...정말 명분없는 자기파시에 지독한 '썰렁'함이 느껴진다. ▲90년대의 정체성, '썰렁'함을 체출만한 논리를 진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섭)

### 작은 나라

고대성 (6)

### 연대사건

### 추석

### 들어오지 않는 학우

# 분당한방병원은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개원식: 1996. 10. 11. 11시

동국대학교 의료진은 의료시혜를 통하여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수도 권 분당에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모시고 가장 모범적인 한방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 록 원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조재호

진료과목			
진료과목	교수	전문 진료 분야	특수클리닉
한방내과	이중형	위염, 위궤양, 간염, 변비, 설사 등의 소화기 질환	보양클리닉
	이원철	협심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	중풍센터
한방부인과	박성식	불안신경증, 치매, 내분비이상,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특이성 질환	두통클리닉
	김정현	불임, 경년기장애, 생리불순, 소아발육부진, 열성경련, 소아정신질환	신우클리닉
한방재활의학과	김종호	근육 및 말초신경마비, 신경통, 상지관절염, 안이비인후과 질환	요통클리닉
		디스크, 요통 등의 척추질환 무릎 및 어깨관절 질환	비만클리닉
		모든 운동장애 등	

분 / 당 / 한 / 방 / 병 / 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TEL.: (0342) 710-3700~9(4)

..... 마음이 깨끗하여 생각  
**금주일어** 이 고요하던 밤하늘이 즐  
 거워왔고 마치 기러기가 연못을 버리  
 고 가듯 이미 어리석은 깊은 수렁을 건너도  
 다 (법구경·나한품 269절)

# 東大新聞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오정익  
 주필: 이기  
 편집: 김기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권동3가 26  
 ☎29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21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11월 11일 (월요일)

1

## 교육개혁시리즈

### ⑥ 타대학 이수 학점

본고는 현재 7개국 25개 대학과 자대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타 대학과의 교류에 대한 토대가 확대되어 타대학 이수 학점 가능 영역이 한층 넓어졌다.

올해 해외 자대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파견된 인원은 총 1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가 있으며 타대학 이수학점이 가능한 대학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하와이대 일본 대정대와 용곡대, 중국 남경대, 러시아 켈리크 예술대 등 6개국과 학점 및 성적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의 호응도 또한 높아 교환학생 신청 지원률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공부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 교류의 이점으로 인해 교환학생수와 학점 이수 대상 대학의 수도 늘어났다 한다.

그러나 학점 제35조에 따르면 대상대학이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국내 협정을 맺은 경남대와 원광대와는 학점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타대학 이수학점 교류기간은 4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원칙으로 보통 3학년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된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지원, 선발되어 타 대학으로 파견되면 그곳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며 본교의 기준에 의거해 환산 조정되어 인정 받는다.

국내 교류의 학점인정은 매 학기당 6학점까지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총 교류 학점은 1년간 12학점이며 국제 교류는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어학연수는 3학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본교의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의 공인 대학과의 진행된 대학은 없으며 6개 해외 자대 대학과 학점 및 성적교류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으로는 매학기말, 4학기 이상 학점을 이수하고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총 취득학점 평균이 평점 3.0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한상용 기자)

# 교육개혁평가 '최우수'

## 학생선발·열린교육체제등 1위...13억 지원확보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본교가 종합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개혁의 성과를 인정받고 본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본교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1위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1위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8위 △대학의 특성화-8위 △세계화·정보화-9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13억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종합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위로 선정된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 교육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특차모집 정원 50% 확대 △

소년소녀가장 선발 △장애인선발 등이며,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은 △졸업학점 하향조정 △전공필수 폐지 △학부제 도입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전국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상황을 평가하여 장려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평가서를 낸 1백3개 대학중 23개 대학을 분야별 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최고 13억을 총 3백억을 나누어 지원하기로 지난 21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성과항목	개혁 전	개혁 후
특차모집 확대	정원 20%내	정원 50%로 확대
특기자 범위 확대	체육, 문화부분	분야확대
소년소녀가장 선발	-	4명
동아문화선발	정원 2%	정원 3%로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	10명
내신성적교과영역	전과목 총점제, 15등급	수험생 4과목 선택, 5등급 상대평가제
내신성적 비교과영역	-	점수와 반영
면접고사	가부단 결정	점수화 반영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평가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 부문에 1위를 차지해 정부의 13억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요는 학생선발부문의 성과항목.

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중앙대의 경우 10월29일 교육개혁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평가로 인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더욱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관장은 "중앙대의 주장도 타당하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며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과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두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선발'에만 13억을 지원했으며 상대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동국대를 제외한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 지원한다"고 말했다.

### '비전! 동국 1백년' 12일 경주에서

'비전! 동국 1백년' 후원의 밤이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개교 90주년 기념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고,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서을 행사에 이어 동국 발전 기금 조성을 배가시키며, 경주권과 동국 조원의 위상 제고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행사 성격에서 이번 행사의 규모와 취지를 알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식전 행사로 국악과 공예, 보도사진 촬영 등이 있으며, 1부 행사에는 MBC 야나문서 최창섭(경향 74쪽) 등문과 92년대 미스코리아 유하영(연영4)의 공동사회로 △개회사 △삼귀의례 △총장 인사 △이사장 치사 △내빈 축사 △경과보고 △영양 사사회 및 사업 계획 △사총서원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 행사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송석구 총장, 김병기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및 직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의 밤' 경주 서을 구치소에 19일째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은 예전같지만 않다. 사진은 지난 6일 동국관 앞에서 개최된 2차 선거유세의 모습. (관련기사 5면)

### 동대신문 기자 2명 구속

#### '소나기' 내용중 일부 문제돼

본지 1210호(10월7일자) 소나기 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편집장과 관련기자 1명이 지난 10월 16일 구속됐고, 이후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소나기 란은 학내외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해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있고, 관련 구역인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10월 10일 이익성 편집장과 관련기자 2명, 양지연 여

문매채부 차장이 증부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증부서는 10월 14일과 15일 전 기자를 소환해 조사를 한 후 16일 오전 3시경 국보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을 제재, 배포, 소지 혐의로 파주형 편집장과 양지연 기자 구속, 사정촌 편집장 간사의 김상만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나기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당국의 판단에 관승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일보의 경우 "경찰 당국은 대학신문의 이적성 여부를 계속 경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며, 대학 당국은 이번 일을 책임지고 대학신문의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명목적으로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서 사회에서 격리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논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순열 전 주간교수를 보직 해임했다.

본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대자보에 쓴 낙서를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성 언론의 매카시적 편파보도의 정찰 상부의 추궁에 의한 건수 올리기식 표적수사이며, 구속된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구속된 기자들은 10월24일 중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11일 현재 서을 구치소에 19일째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 보리수

산사의 새벽은 어디보다도 싱그러우며 고요하다. 칙칙함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별빛도 희미해 질 때면 사마는 천공같은 몸을 일으켜 새벽 예물을 준비한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때면 새벽잠이 없는 노스님의 불효행이 떨어진다. 지난밤에 긴장을 하고 잠든 탓에 5분전에 일어나 급하게 준비하였지만 4시를 어기지 않고 도망서는 시작된다. 처음에는 산새를 비롯한 잠든 삼라만상의 단장을 깨우기가 차마 미안하여 놀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탁을 친다. 그러나 잠잠은 젊은 스님에게는 마치 군인의 아침 기상 나팔소리라도 같이 꿈속에서 이리저리 들려 올 뿐이다. 밤새, 관하게 잠든 단장 이아발로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보배와도 같다. 그러나 온

## 산사의 새벽

도망을 울리는 목탁의 소리는 부시시 눈을 비비고 나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흐르는 개울물을 한올쯤 움켜쥐고 있는 일을 행구고 얼굴을 비빌 때면 이미 잠은 멀리 도망가고 해맑은 정신이 찾아온다.

도량 구석구석을 돌면서 잠든 대중과 계은른 사미를 깨우는 소리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시끄러운 벨이, 아니라 온온한 목탁 소리와 청량한 염을 가락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 온 대중은 합창하고 뒤를 따르며 천수경을 읊얼거린다.

도량을 안위시키는 목탁선이 끝날 때쯤이면 모든 축성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고가 울린다. 하늘의 천둥소리도 같으며 울리는 장삼자락은 춤추는 나비같이 사뿐거린다. 때로는 느리게 동동거리다가 급하게 질 때면 마치 신들린 사람과도 같다. 이어서 문관과 목어소리는 새로운 화음을 날게 하며 날은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법음이 울리고 소동이 내려지며 법당은 대중으로 가득하다.

지심귀멸례하고 시작되는 예불소리에 간절한 소원이 극락에 닿는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일체의 승가에 귀의하고 역대조사와 정법안장의 제대조사에 이르기까지 예를 울리며 중생의 안위를 기원한 후 끝나는 예불은 그대로 우주의 울림이다. 산하촌의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도량은 죽비소리로 선정에 든다. 이러한 새벽을 모르고 어찌 불교의 정맛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 본사 신임주간 오정수 교수 임명



본사 19대 주간에 오정수(산림자원)교수가 지난 10월18일자 임명됐다.

신임 오정수 교수는 본교 일학과를 64년에 졸업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본사 사령  
 ◇일수습기자  
 ▲배승원(사과대 사회과학계열1)  
 ▲오인택(사과대 신문방송1)  
 ▲최진(생자대 생명자원계열1)  
 (이상 10월14일자)

## 교수동정

△이태균(한의학)은 96년 9월부터 97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96한중과학기술자 교환연수'에 참가해 "정서적 문제가 신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에 관한 연구" 발표자 중 국 상해의과대 방문.

△이법산(선학)은 10월7일부터 11일까지 학술발표자 중 국 북경 방문. △김익기(사회학)는 일본 International Lingrity Center에서 논문 발표자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방문.

△유광진(정치외교학)은 10월2일부터 9일까지 호주 CQU대학과 자매결연장차 호주 방문.

△이승영(무역학)은 10월5일부터 10일까지 아프리카연방연맹 연례강좌와 강의를 나이지리아 방문. △최창술(선학), 임기중(국문학), 목정배(불교학)는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학술교류 세미나차 일본 대정대학 방문.

# 새롭게 태어나는 동대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대신문은 창간 46주년을 맞으며 대학의 깨어있는 양심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지표가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충실히 부응하고자하는 소명 하나만으로 지령 제1210호를 이어내려 왔습니다. 정녕 정론직필의 의연한 자부심으로 어떠한 도전과 고난에도 멈춤 없이 진리와 자유 그리고 학문과 지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과사현정의 용기로 학문과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 정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을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찌기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다양한 여론의 수렴을 통해 독자 대중에게 다가가는 열린 언론을 지향하는 자세에서 신문을 만들어 왔으나, 제1210호 신문을 제작하던 과정에서 독자 참여의 글 중 일부가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되어 국가와 사회의 규범 및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대신문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픔과 좌절만을 반복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오류와 왜곡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순수하고 솔직한 용기와 반성으로 환골탈태하여 동대신문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신문은 이를 계기로 진실로 우리 사회와 대학을 올바르게 향도하는 우뚝한 등대로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매 허심탄회하게 베풀어주신 지도편달을 더욱 깊은 애정으로 가해주시고 동대신문의 밝은 앞날을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신문사



# 언론소유 개혁 통한 대체매체 개발 시급



유 일 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시사논단 한국 언론의 실상과 개혁 방향

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보조작과 정치선전의 도구로 일제에 의해 수립된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조직·운영되었다.

언론과 수용자인 국민들의 관계는 쌍방간의 단순한 사회적 교섭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수용자인 국민들은 부표를 통해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고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화폐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다. 권력은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언론을 감시하지만 수용자 대중의 이익보다는 언론자신과 권력, 또는 자본과 쉽게 친화한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갈등의 회피를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속성에 비추어 언론인 개인의 쉽게 전체사회의 규범에 익숙해지면서 언론기관 그 진정한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게 된다.

첫째, 권력과 언론이 하나의 복합체가 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기(LSA)로서 권력의 자발적인 협조자가 되어 권력의 탄압을 받거나 공안정국과 같은 위기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

둘째, 언론과 상업자본의 결합은 이미 재벌언론의 폐해에서 노정되었듯이 언론기관을 소유한 특정재벌의 목적이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기관 스스로가 재벌의

홍보실화 하게 된다.

셋째, 언론과 권력 및 자본의 결합현상이 벌어지면 많은 국민들은 언론의 본질이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삶과 사회현상에 대한 몰이해로 현존하는 체제유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 수동적인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유일한 정보를 선택할 능력과 의지가 더욱 더 결핍되게 된다.

언론과 권력 및 자본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언론조직의 내부개혁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내부개혁을 미흡한 권력이나 자본과 계속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수용자 대중들은 알권리를 빼앗기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언론인들은 대항언론이나 대체언론을 출현시켜 자신들의 표현욕구를 전달·전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언론매체들이 개혁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언론미디어의 시장구조에 반드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대자본가간의 일간신문사 소유를 가능하게 한 현행 전기간행물 등록법도 고쳐야 하지만 소유는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가하여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 방송이 명실상부하게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청자의 필요와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폐하는 일도 급하다.

둘째로는 제도권내에 종사하는 언론

인의 의식개혁이다. 민족의 분단과 민족의 불평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시민사회의 모든 움직임과 사회집단의 주요동향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시민들이 그 실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언론인을 채용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언론의 개혁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일제는 제2차대전 패전 후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20만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 협력자와 어정쩡한 기회주의자, 양심적인 개혁세력이 언론계에서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양심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로막는 악법들이 폐기되어 신진개혁세력이 언론계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극우보수 논객들은 언론계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언론의 역사 바로세우기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민주세력의 대체매체개발은 한국언론의 제반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적인 개혁이 될 것이다. 바 그중 한 두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째, 대학신문을 각 지역의 대체매체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학신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갖고있는 홍보지구목예선 또는 발간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 신문들 소규모의 지역매체로 발전시킬 때 구독료표준이 증가하면서 현재 현행 일괄적인 내용으로 편집된 기성신문시장을 파괴할만한 대체매체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대학신문이 이 기능을 수행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둘째로는 최근들어 기성언론의 비평을 목적으로 창간되었거나, 기성언론과 분명한 차별성을 표방하고 있는 주간신문들이 연합하고 시민단체와 연합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또한나의 새로운 일간신문을 대체언론으로서 석간의 일간신문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 사설

### 동국의 새로운 도약기

본교가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백 13개 대학중 각 평가 분야별로 상위를 차지,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본교의 교육개혁의지는 초기 교육부의 대학 교육개혁의지를 부추기고 계획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우수대 평가의 경우 지난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본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신속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는 교육, 연구시설 등 큰 골격의 평가보다 학사일정, 교육과정의 합리성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위주의 평가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각 부분별 항목중 상위를 차지한 연구체계의 수월성 부문은 연구교류제를 신설하고 6개 연구원 4개 연구소로의 통합, 연구비를 중앙관제하에 둔것에서 합리성이 엿보인다. 또한 가장 가치적인 미래 대학 이미지전환 성과는 대학의 정보화 부문에서 드러난다. 각 건물에 연결한 총 1천5백여코트의 근거리 통신망(LAN)구축과 행정업무의 통합 전산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개발은 가치 첨단 지향적이다.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연수 교류 강화와 외국어 교육의 확대도 의미있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미래 지향적 제도가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야별 평가 항목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생활 부문과 교육과정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입학 정원에서 특차모집비율 50%확대,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지원 확대 등의 유연성이 학생생활 부문에서 눈에 띈다. 그러나 특차 지원의 50%확대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그에따른 혼선이 우려된다. 교육과정부문은 이제까지 많은 논란과정을 겪어온 학부제등 가장 민감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어느정도 정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가닥 아쉬움도 없진 않다. 학생들은 학부제 실시에 따라 빠르게 조정되는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존 학과체계의 학생이 후학을 통해 학부제 체계로 졸업하고자 할 때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과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부제 1기생들의 경우는 이번 일시요강이 조정됨에 따라 혼신을 기울여야 하는 등, 학교행정의 좀더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이제까지의 많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현재 캠퍼스 구성원들은 본교의 우수대학 선정결과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다. 그동안 본교는 내적으로 대학 개혁에 관한 신속한 준비, 꾸준한 발전기금 마련과 외적으로 야구부의 춘계리그 우승, 여러 동아회와 같은 문화행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유망한 유지 등으로 거듭 새로 태어나는 이미지로의 전환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들은 소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동국인의 의지를 하나 둘 모은 새로운 도약기임을 말해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 중국만평



고대성

## 금융노동자 정리해고 '고용 조정제' 합전법 걸림돌인 노동자 해고 수단 관치아닌 자율에 의한 합병 논의돼야

지난 10월4일 재정경제원은 부실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꿨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하였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을 (반) 강제하면서, 이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유인책의 하나로 사실상 정리해고인 고용조정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규모의 대형화이며 △대형화를 추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합병이고 △합병 기피요인이라고 판단한 피합병 금융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7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추상적이거나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제도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과 상충될 뿐 아니라 일의적이라고 자의적인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고용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부실금융기관에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제화가 되어 금융기관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 경영이 부실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경영합리화한 명분으로 고용조정제도가 확산 적용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합병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나름대로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이하 합전법)을 만들었고 이후 합전법에 따라 투자금융사 간에 합병

이 이루어져 투자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금융사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어 199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각종 조세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합병앞선과 합병에 대한 자금지원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합병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합병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정리해고 문제는 그간 진행되어온 노사개혁위원회에서도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으며 어느정도 의견이 조정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에서 노동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노사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전연 부인하는 행위인 것이며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유독 금융산업 노동자에게만 차별입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편주의적 발상에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에 집착하느라 경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할 우려가 농후하다. 이는 마치 날씬해지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결론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은 합병의 여건이 성숙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그 효과와 있는 것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합병전락은 규모만 대형화되고 총체적 비효율성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다시말해 관치에 의한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자율에 의한 화학적 합병만이 향후 합병을 논의할 때 유효하다는 것이다.

권재철 (사무노동부 위원장)

# 미래가 있는 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축자재, 도로, 건설에서  
신소재 분야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인재들을 모십니다.

##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인원 및 응시자격**

직종	모집학과	인원	응시자격
관리	상경, 법정, 어문, 기타인문	100명	1.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업	사회계열 전학과		2.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997년 2월 취득 예정자
연구	화학, 화공, 고분자, 공업화학, 연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영업		3. 외국어 대학 및 대학원 출신자 (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생산	무기재료(상기관련학과포함)		4. 졸업할 때는 영재자
진산	전자계산, 통계, 수학	5. 외국어에 불성취자가 없는 자	6. 환경관리기사 및 산업안전관리기사자격 소지자 우대
디자인	디자인관련학과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나. 2차: 필기시험  
과목: TOEIC, 직무능력 및 적성  
다. 3차: 면접 및 신체검사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다.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라. 국가보훈처 취업보조대상자 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6년 11월 8일(금) ~ 11월 15일(금) 09:00~17:0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나. 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KCC 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3450-5131~7, 5520-4
부산	부산 영업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899-1	512-3211~5
대구	대구 영업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371 214-25	252-4321~4
울산	울산 영업소	경남 울산시 중구 영포동 777	80-1717
전주	전주 영업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0	261-0120
광주	광주 영업소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96-2	943-8211~6
충주	충주 영업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923	211-9277~9
대전	대전 영업소	충남 대전시 대덕구 연동동 230	635-4323~8
원주	원주 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2	44-6821

다. 접수처: KCC 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1301-4 금강·고려 B/우편번호: 107-703  
전화: 3450-5131~7, 5520-4, 5512~15  
위치: 서울시 서초구 제일생명 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5. 기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학력 불충분자는 96년 12월말 이전 전직자에 한함  
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람

**(주)금강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 http://www.kccworld.co.kr

◆ 심포지엄-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언론과 민주주의

# 한국언론의 민주적 개혁과 대학신문의 역할 고민

## 재벌 언론 법적규제와 언론인 의식개혁 등 제시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재벌과 언론’ ‘언론과 민주주의-한총련 통일 대추전을 통해 본 대학언론과 제도언론’ 두 문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학술단체 협의회(학단체)와 전국대학 신문기자 연합(전대신문) 주최로 열린 언론에 관한 심포지엄 제목이다.

이 심포지엄들은 최근 한총련 통일축전과 간접시간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됐던 사건들에 대해 각 언론사들의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양태와 대학언론의 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현 언론 자태에 대한 연구나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학단체가 주최한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심포지엄은 재벌과 언론이 얽힌 사회 통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개혁과 언론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문제 분석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재벌과 언론-90년대의 지배 구조(이상희·상지대 이상장) △재벌

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 체계의 개혁 방향(홍덕률·대구대 교수, 공제욱·상지대 교수) △90년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 구조 변동(김서중·공주대 교수) △재벌과 갈등(김상조·한성대 교수)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조 강연자 이상희씨는 “조선, 동아, 한국일보와 같이 재벌과 언론이 하나로 유착돼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의 소유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언론들은 이른바 공익성을 지닌 문화기관이라는 성격을 벗어 던지고 그 자신이 하나의 언론산업으로, 거대한 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언론산업이 필연적으로 재벌과 유착되어 있는 관계를 밝혔다.

이러한 소유관계로 인해 보수언론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뿐더러 경영과 편집의 분리 또한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다.

한실이 이러한가 때문에 대중매체가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기는 하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 대학로 총서단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언론과 민주주의’ 심포지엄.

논의되고 있다.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규제 능력이 뛰어나다면 모르겠지만 자체 심의제도 등의 자율규제 운용실태는 오히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배제대 김중서 교

수는 △편견권의 독립 △기업공개와 소유 지분 둘러싼 내적 결정권 확보 △광고 규제와 공정거래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가권력의 언론지배라는 한계 때문에 사상통제법 체계 철폐운동의 맥락에서 이루

어 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극대화됨에 따라 언론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김동규 교수는 언론운동의 정체성 확보, 조직의 체계화와 전문화, 사회적 연대 활성화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편, 전대신문이 주최한 심포지엄 ‘언론과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언론의 개혁과 대학신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각됐다.

△대학신문 언론 자유 침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전승수·전대기원 의장) △언론으로서의 대학신문(이효상·성균관대 교수) △문민시대 언론권력의 실태(손석춘·한겨레 신문기자) △한국언론의 개혁 방안(유일상·건국대 교수)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임주웅 연노련 기획실장과 전동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실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한겨레 신문 손석춘 기자는 “한총련 통일 대추전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우리 언론이 민주화와 통일로부터 얼마나 멀리있나 깨닫게 되었다”며 “언론은 처음부터 학생운동에 적대적 자세를 보이며, 공권력을 끌어들이며 총기 사용이라는 극단 처방을 내리는데 앞장섰다. 언론의 이러한 비이성적, 편파적 보도는 과연 언론의 자발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주문일지를 생각해 보면 문민시대 정치권력의 특성은 과거에 비해 더 세련됐는지 모르나 여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문민시대의 ‘언론 통제’ 속에서

대학신문의 운신의 폭은 명백히 축소되었다. 현재 승실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40여 개의 대학신문사가 한총련 통일축전, 간접시간 등에 대한 보도로 정상적인 신문 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신문사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효상 교수는 “일반 기성언론의 언론이 집권세력이나 기득권 세력과 같은 강자들을 대변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는 대학 신문과 같이 기득권 세력이나 보수 이데올로기에 열매이지 않은 언론의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이 더욱더 요구된다. 대학신문은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언론으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위상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 전동환씨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를 말해줘야 하며,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안 만들어지는 대학언론이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대학언론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위의 심포지엄은 현재 언론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혁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특히 언론의 재벌 소유방지와 언론인의 의식개혁이 선행해야 할 해결과제로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 이상 언론의 대성만으로 부족하다. 언론인들의 건전한 의식과 함께 이러한 의식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시켜 주는 독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고지은 기자)

◆ 민주노동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며

# 노동법 개정 중심의 활동 전개

## “합법성 인정받아 사회개혁 활동 촉진할 것”

11월 10일 여의도에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모인다. 88년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 이래 최대수이다. 아름다운 청년전대일의 불꽃과 87년 6월과 7·8월 노동자 대항쟁을 거쳐 이어져 온 민주노동운동이 1995년 11월 12일 생산직·사무직 문직, 중소·대기업, 공공·민간노동자 50만 명을 포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의 출범 한달 기념과 대중적인 노동법개정투쟁 의지를 모으는 날이다.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전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의 건설’의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한다고 출범선언에서 민주노동이 밝혔듯이 개별 기업별노조의 힘만으로는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실현하기 어렵다. 바로 민주노동 출범의 배경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키위해 민주노동은 준비의 시점부터 세계개혁, 의료보험 통합위원회, 교육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위원회 등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실 87년 6월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는 일정정도 있었으나 외적 재벌과

언론의 독선, 독재는 경제, 사회, 정치 전방의 실질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민정부 등장 이후 허해진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실효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의 사회개혁투쟁과 산업현장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사회 민주화의 실효를 채우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노력들이고 민주노동과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는 그를 위한 디딤돌이다. 따라서 올바른 노동법 개정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시금석이고 출발인 것이다. 사람에게 한달은 잔치이고 즐거움이다. 그러나 민주노동은 ‘돌 잔치’ 여우도 없이 11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와 의지를 모은다.

바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지이다. ‘노동자의 권리에서 낮잡자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독일의 법格言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민주노동은 ‘돌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투쟁적 측면에서 사회개혁투쟁을 살펴보자. 일례로 의료보험 통합위원회는 95년 현재 4~5조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

금을 국민생활향상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란 실질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민정부 등장 이후 허해진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실효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은 ‘돌 잔치’ 여우도 없이 11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와 의지를 모은다. 바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지이다. ‘노동자의 권리에서 낮잡자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독일의 법格言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민주노동은 ‘돌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투쟁적 측면에서 사회개혁투쟁을 살펴보자. 일례로 의료보험 통합위원회는 95년 현재 4~5조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

금을 국민생활향상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란 실질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민정부 등장 이후 허해진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실효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은 ‘돌 잔치’ 여우도 없이 11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와 의지를 모은다. 바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지이다. ‘노동자의 권리에서 낮잡자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독일의 법格言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민주노동은 ‘돌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사관계를 규정짓는 사실상의 전국중앙조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이 합법성을 획득한다면 조직확대는 물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회 복지과 개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주노동은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투쟁(현재 노동시간 94년 제조업 48.7시간으로 세계 8위), 상품 백화점투쟁의 사고와 산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는 작업중지권 확보투쟁, 경영참가(재벌 비자금 비리 적절 등), 직장발전위원회를 노동조합수로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투쟁을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삶의 질,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노동운동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민주화와 평화 통일,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바로 노동법 개정을 통한 민주노동, 전교조의 합법성은 이러한 사회개혁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노동법 개정이 우리 모두의 생존권 보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참교육과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어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행정의 민주화가 이룩된다면, 민주노동이 합법화되어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결정의 한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의료보험제도, 산업경제정책을 민주화한다면 분명 우리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촉진되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 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동약로

### 역사 한편



경주점 총학생회(이하 총학)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6일 오후 5시경 원서 등록이 마감됐으나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분실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분실된 등록원서에 관해 중선위 한 위원이 “두 후보자가 등록한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말한 데 대해 중선위 위원장은 “보지 못했다”고 부인해 중선위들간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같은 장소에 있던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자 ‘인상규명’이라는 제안으로 회의는 일단락 됐다.

다음날(7일) 오전 8시30분 1차회의 제안으로 열린 ‘새로 재등록을 받자’라는 의견이 나오자 중선위들은 사무실을 나갔고 회의장 앞을 지키던 모속 구단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2차회의는 무산됐다.

한편 당일 저녁 9시30분 3차회의에서 중선위 위원장은 “6일 등록마감 날 두 후보자가 분명 등록했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다시 두 후보자의 방향에 초점이 모아졌고, 중선위에서 알아본 결과 한 후보진영이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위원은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지만 원서서류가 분실된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중선위는 두가지 해결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사과 자보를 붙이고 중선위에 재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일 오후 마감된 후보자에 한해 서류심사 후 선거세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두 안건 중 표결한 결과 전자의 안건이 관철됐다.

이로써 13년간 경주점 총학선거에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다.

이번사태로 인해 중선위는 선거관리대상을 잃어버린 뿐 아니라 학생회 위상 또한 실추시켰다.

공신력을 잃은 중선위의 위상찾기와 우려폭결 끝에 세계 될 14대 총학생회가 97년을 어떻게 장식할지 학우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조인선 기자)

正道경영·초우량LG  
도약 2005

# Elite? No, Super Elite!

LG는 양과 질 모두 최고를 이루며, 최고의 고객감동 브랜드를 만들어 최고의 보람있는 직장이 되기 위한 도약 2005의 실현 사업중 하나로 High Performing Leader를 양성합니다.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③ High Performing Leader 양성 편

LG는 젊은 HPI(High Potential Individual)를 발굴하여 세계화 능력과 정보기술, 문제해결 스킬 등의 교육 및 시련 학습(Action Learning)을 통해 진정한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갑니다.

세계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TEL: 3773-2185 FAX: 3773-0588

제29대 총학생회와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맞아 본사는 각 후보자를 본사 회의실에서 개별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총학생회 후보자 김인영(사학2) 후보는 김인영, 홍미리 후보가 모두 단독 출마했으며 출마 동기, 공약사항, 전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질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후보들에게 감사드리며 개표순간까지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 제29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학생회 강화에 총력” 함께 고민하는 학생회로



△정: 구장주(야간영문4) 부: 원진욱(사4)

원진욱(사4)은 과학생회 활동이 M·T와 체육 대회가 주요활동이 아닌 과토론회의 활성화 등 과대표 교양작업등을 통해 총학생회의 근간인 학생회를 강화하겠다고. 둘째 공인담당 분석과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면서 구속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맡아 지겠다. 자치활동을 인정, 보장하지 않는 국보법과 노동법에 관련된 활동을 학교내에서부터 전개하겠다. 셋째 학생회 본분으로서 지금까지 간 존재는 학자부의 단점을 없애 학원자주화 투쟁 10년의 성과를 발전시켜 10년의 학

제29대 총학생회에 단독입후보한 구장주(야간영문4), 원진욱(사학4)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앞두고 거리 선전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하게된 동기는,  
=올해 야간강과 총학생회를 운영하면서 자주회투쟁을 전개해왔다. 중앙 집부를 중심으로 집단활동을 하면서 단과대 운동의 중요함을 느꼈다. 학자부활동에서도 단위 분위가 체 정비 되지 않았고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자부의 내실을 기하는 것과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했다. 동국대 토대를 마련하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이번 28대 총학생회를 진다. 평가한다  
=열의와 헌신으로 만들어졌다. 상반기 학원자주화 투쟁, 새내기 새로 배움터, 통일대행진, 농활, 연대행진등 중심거리를 잘 잡았다. 그러나 큰 사업들을 준비하고 시행했지만 단과대와 과학생회의 논의 부족으로 총학과 양분화되는 개별화 양상을 보여줬다. 5.18투쟁을 전개하면서 학생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볼 수 있었지만 등록금 인상, 학부제 실시, 공간문제등 학생들의 불만은 증가했고 이러한 요구를 한곳으로 모으는데 미흡했다. 결국 단과대의 산발적인 투쟁이 어느정도 성실화 수행했지만 이를 하나의 축으로 표출해내지 못했다.  
-주요정책과 공약사항은,  
=우선 첫째 학생회의 대중적 강화에

여하는 대중적인 강좌개설이 되도록 문학, 정치,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 유명한 석학을 초빙하는데 힘을 쏟겠다.  
-올해 역시 수강신청제도의 혼란, 공간부족 등의 문제와 학부제 실시, 제3캠퍼스 이전논의, 대학총합평가인정제에 의한 변화가 심했던 한해였고 내년 또한 큰 전환점이 될 거라 예상된다. 만약 29대 총학생회를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달라.  
=올해는 수강신청제도, 공간부족, 학부제 실시 등에 관해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올바르게 합의, 논의하지 못했다. 학자부 10년을 총화하면서 성과는 계속하고 한계는 인정하며 하나 둘씩 풀어가겠다. 동대의 변화된 모습은 학부제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특히 학문에 관련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되어 버렸다. 폐강, 분강으로 수업이 불안하고 지속적인 교과과정의 정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양과목중 진보적인 교수의 강의는 폐강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났고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강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않는 교과과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공간부족문제에서는 자치공간확보에 대한 모색에 노력하겠다. 제3캠퍼스 이전에 관련해서는 제 주체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연대사업으로 인해 학생회가 다소 위축되었다. 학생회 강화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학외에서는 학생회의 위기를 조정하는 사회분위기, 학내에서는 교육제도 개편(학부제)등으로 인한 혼란으로 학생회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은 공간문제 단위인 과학생회와 학부 단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만 가능하다. 97년에는 새내기 교양 학교에 중점을 두면서 학부제 시대 특색한 학생회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상홍 기자)

### ●●● 인터넷 따라잡기(2)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면 된다. 너무나 개념적일 수도 아니, 어쩌면 복잡한 그 무엇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인터넷은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사실이다. 간단하게 전화기의 예를 한 번 들어보자. 전화기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자신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순간, 세계 어디라도 음성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게 된다.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컴퓨터가 자체로서는 자신의 디스크에 담긴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가 전화선이나 랜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글과 영상, 음성 모두가 오갈 수 있는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인터넷은 결국 전세계 컴퓨터들의 연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 방대한 주소들의 관리 는 미국의 NIC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유동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서 인터넷 여행을 하게 된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은 그 고유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NIC에 등록이 되고, 이 자료들은 각각의 네트워크 서버(네트워크 관리 컴퓨터)들에게 알려져, 그 하위 네트워크 연결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인터넷 서명(여행)을 할 때, 그 찾고자 하는 주소로 연결해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전화를 하면 언어차이 때문에 통화가 힘들듯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완벽히 공유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언어(프로토콜)와 그 표현 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언어처럼 컴퓨터간의 정보

교류방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교류가 되는데, 요즘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W.W.W(World Wide Web)이라는 것이다. 웹을 인터넷으로 혼동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던 웹이 현재 인터넷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대체 및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파일의 전송(F.T.P)과 원격 접속(TELNET) 그리고 동시 화상까지 웹을 가능하게 때문에 예전의 각각의 다양한 방식과 그에따른 까다로운 각종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이런 필요가 어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웹만이 능사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원격접속 프로그램(telnet)이나, 파일 전송 프로그램(F.T.P)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언급 하기로 하자. 이렇게 인터넷은 컴퓨터간의 연결로 볼 수 있고, 연결망을 통해서 각각의 고유 주소로 멀티미디어적인 정보들이 오가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 인해서 이전 공개이벤트라는 초고속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하는 PC통신은 어떤것인가? 당연히 인터넷의 한 부분이다. 그러한 자그마한 PC통신들이 정한 주소를 가지고서 인터넷 여행을 하게 된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은 그 고유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NIC에 등록이 되고, 이 자료들은 각각의 네트워크 서버(네트워크 관리 컴퓨터)들에게 알려져, 그 하위 네트워크 연결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인터넷 서명(여행)을 할 때, 그 찾고자 하는 주소로 연결해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전화를 하면 언어차이 때문에 통화가 힘들듯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완벽히 공유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언어(프로토콜)와 그 표현 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언어처럼 컴퓨터간의 정보

\*아래 홈페이지로 오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넷 연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civer.ldongguk.ac.kr/student/93320310/index.html>  
정성욱 (SCMER'S 웹 시삽·물리3)

### ◆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올바른 성인식 뿌리내리기” 학생들 적극 참여 유도할터



△정: 김인영(사2) 부: 홍미리(화2)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후보로 나선 김인영(사학2), 홍미리(화학2)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모두 범어리들이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린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성담론화와 페미니즘을 담보해내며, 동국내 여학생들과 함께 협의하고 우리들만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되었다.  
-제11대 총여학생회를 평가한다면,  
=제11대 총여의 주된 공약은 총여학생회의 인식강화와 단위대행이었다. 성문폐쇄와 배척이 대학을 통해 총여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강화되었으나 단위대행은 미비했던 것 같다. 제12대 총여는 11대의 성과를 받아 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제11대 총여학생회의 배척이 대학, 성문폐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여학생복지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여학생 휴게실 문제와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가?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의 복지만을 위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본교의 복지실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여학생 휴게실은 도서관과 계산관 두 곳에 있는데 소파를 가져다 놓은 것외에는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현실이다. 생리대 자판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전달했지만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없이 설치될 뒤로 미루고, 여학생들은 그만큼 불편

을 겪고 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공약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제12대 총여는 8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단위대행이라고 생각한다. 성정치위원회를 만들고, 성폭력 신고전화로 타어성단체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 시킬 것이다.  
또한 여성주간을 선포함으로써 여성들만의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회 배척이 대학, 성문폐쇄가 그 범위가 광범위해 인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해서 제2회 행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가가고 싶다.  
한가지 더 꼽는다면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위한 대중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존의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부르는 집회가 아니라 다같이 한지리에 모여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는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동양내 모든 여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선거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훈 기자)

### 사 고

#### ◆제34회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①인문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②사회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③자연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장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입상작 발표:1997년 1월1일과 본지 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260-3491-2

####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①시 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②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심사  
①시 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②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③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장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1997년 1월1일과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동대신문사

# 아깝다, 좋은 인재!

##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벌써 그만두다니...

인재들의 능력을 120% 개발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삼양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학교에서는 이를 수 없는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양그룹은 인재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국내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이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해외연수등의 신입사원교육으로, 1년간 자유롭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해외 우수 대학의 MBA과정 교육으로, 선진경영기법, 신규사업, 국제금융에 대한 Global Manager교육으로 - 삼양그룹의 인재에 대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속의 초일류기업-삼양그룹은 이미 그 큰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 섬유부문 : 원사에서 패션까지 수직계열화 추진
- 세계 5대 폴리에스터 메이커 진입 추진
- 화학 부문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첨단고분자화학분야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 TPA생산능력 확대
- 환경·엔지니어링 부문 :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환경사업 강화
- 플랜트 건설 사업의 중점 추진
- 건강산업 부문 : 세계 최초로 항암제 개발의 대량생산 성공
- 폐취제거 개발 및 전문의약회사 설립 추진
- 정보통신 부문 : 인터넷 구축, 공중차동화 사업, 화상회의 사업
- 국내 유선방송사업과 미국내 무선 CATV사업

• 사업영역: 섬유, 식품, 사료, 화성, 기계, 엔지니어링, 의료, 정보통신, 금융, 연구개발, 해외사업, 무역

1996년 1월 1일  
본인 김성훈

사직서

성명: 김성훈  
소속: 경영혁신팀  
직위: 사원  
입사년월일: 1996. 1. 1  
퇴사년월일: 1996. 1. 1

사유: 저는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노자는 저를 개발하고 저의 미래를 찾기위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달 안되는 생활이었지만 이회사에서 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6년 1월 1일자로 (사직 휴직, 복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불교학술회의 개최 한국불교의 방향성 모색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은 개교9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달 24, 25일 일련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21세기 문명과 불교'라는 주제로 세계불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인류문명의 전환점에서 세계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 5개분과로 나눠 진행된 각 분과당 주제는 △

제1분과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명' △제2분과 '승교 다원주의 사회와 불교' △제3분과 '지구화 시대의 윤리와 불교' △제4분과 '자연·환경·생명'과 불교' △제5분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콜롬비아대 로버트 쉘먼 교수를 비롯해 법흥대학교 레너드 스워틀랜드 교수, 고마자와 대학 마츠모토 시로교수, 김용성, 이기영, 권기중, 김희성 교수 등 20여명의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 자매협정체결 활발히 진행 대만 문화대·일본 사뵈르대 등

대만 중국 문화대학과의 자매협정 체결이 지난 10월30일 송석구(철학)총장의 대만 방문기간내 완료된 가운데 오는 13일에는 일본 사뵈르대학교도 교류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자매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총 7개국 26개대학으로 늘어 나게 된다.

올해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를 포함 중국 3개대, 대만, 일본 각기 6개대 등 총 6개대의 자매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교 역사상 한해동안 가장 많은 해외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

또한 지난 10월23일에는 경남대

와 자매협정을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공인된 대학수는 총 28개대로 교수 및 교육연구자 교류, 학생 및 연구자료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학문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화대학과의 협정과정 내용은 △교정이수, 학습,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교수, 연구원, 학생교환 △논문, 교재, 학술 및 문헌등 교환 △학술 및 문화상의 공동 연구와 협력활동 촉진등이며 경남대 또한 대학원 학점 상호인정과 한의학 연구를 위한 상호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 주차유료화 4일부터 실시 일부단과대, 무료주차권 요구

총무처(처장=임준근·통계학)가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지난 4일부터 주차유료화를 실시함에 따라 교내차량에 큰충격을 안겨준다.

한편 주차유료화와 관련하여 제13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김선문 당선자는 총무처에게 '통일광장에 오후 5시까지 주차를 금지할 것'과 '직장인 학생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발급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총무처 오광진계장은 "학내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 직원, 강사들 모든 주체들이 주차요금을 내는데 소수의 편의를 위해 무료주차권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학생들도 주차유료화에 다 같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10월23일에는 경남대

# '한국 문학지도' 발간 문인들, 문화유적 답사후 직접제작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오늘(11일)문화유적안내서 '한국 문학지도'를 발간했다. 이 책은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서기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으며 상·하권으로 되어 있다.

'한국 문학지도'는 한국문학사를 빛낸 문인 7백여명의 출생지, 작품현장, 기념비, 기념관 등으로 나누어 저서와 전국 1백 65개의 각 시·군·도의 문화유적의 위치를 설명하는 지도가 함께 실려 있다. 또 해당지역의 문인들과 그들의 문학유적, 작품 탄생의 뒷이야기를 작품해설과 같이 들려주는 동시에 그 지역의 관광명

소, 교통편, 숙박시설, 이튿날 식당 등 각종 여행정보를 사진과 지도,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유적 안내서이자 테마 관광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한국문학연구소가 지난 해 4월부터 기획·추진해 왔다. 한국문학회의 전국 각 지방 및 각 지방의 문화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심의하였고 정채봉, 박제천, 홍신선 등 유명 시인, 작가, 평론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글을 써 발간하게 되었다.

# 총학·총여 선거, 내일부터 투표실시

## 학생, 투표참여로 권리행사 해야 할것

제29대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1, 2차 유세기간 1일과 6일 도서관과 동관 앞에서 각각 1백여명 안팎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뤄졌다.

총학생회 단독 입후보한 구장주

(야간영문4), 원진욱(사학4)은 유세에서 공안탄압 분쇄와 교육대개혁을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학부제 실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불만

을 가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학생회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총여학생회 단독 입후보자인 김인영(사학2), 홍미리(화학2)는 2차 유세에서 여성세력의 강화를 주

장하며 "은연중에 퍼져 있는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1시에는 불상 앞에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천성국·컴공4) 주최로 총학 후보, 총여학생후보 정책토론회가 치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진행으로 총학과 총여학생회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이후 선거일정은 오늘(11일)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3차 마지막 유세가 있으며 내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구는 불교대와 예술대가 위치한 제1선거구를 비롯해 총7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단 야간강좌는 오후 2시30분부터 10시30분(14일은 오후 8시30분)까지다.

### 보리수 개·보수 공사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회교학·이하 생활)와 관계처(처장=김종욱)는 지난 2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보리수 개·보수를 실시한다.

이번 공사내용은 스포츠타 및 바둑교체 △주방시설 개수(도시가스 설치, 구조변경) △창고 교체 △출입문 교체 △문풍기-에어컨 설치 △인테리어 공사(벽지, 천정) △인테리어 교체 △다량한 전선 하수공사 등이고 공사업체로는 하남건설이 선정되었으며 비용은 1억7천7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루에 한가지의 메뉴를 갖고 하는 분석판례는 보리수 공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할 예정이며 보리수는 양식코너로 바뀐다.

### 내일 고승초빙 범위

정각원(이법산·선학)은 '현대인의 선'이라는 주제로 서울 콘스님을 모시고 오는 12일 오후 3시30분 고승초빙 범위를 실시한다.

선과 연계하여 오늘날의 현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실생활 서용스님은 전 제종종중장이었고 현재는 백암사 방장으로 있으며, 정각원(77년 설립)의 전신인 대학 선원(63년 설립)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던 불교와 인연이 많다.

### 동연 정·부회장 선거

김명희·최보영 조 당선

제13대 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김명희(역교3), 최보영(물리2)이 당선됐다. 총유권자 1백80명 중 1백36(76%)명이 투표, 1백10(81%)명의 지지를 얻었고 반대는 11(8%)명, 무효는 15(11%)명이다.

### 졸준위 선거 오늘부터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박상욱(경제3)은 선출부표가 오늘(11일)과 내일(12일)이틀간 도서관 앞에서 실시된다.

박상욱 졸업준비위원장 후보는 "도전하는 우리, 정학을 걸고 희망찬 미래로만 가지어라 △과대표를 통한 졸업기념 열병 열대선정 △교수, 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취업 대책위원회 건설 △취업준비행사(모의토의, 모의면접)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투표대상자는 현재 51개 학과 3학년 과대표를 맡고 있는 학생이다.

### 학과소식

공학계열 농구대회

공학계열(회장=윤정호)에서는 학생들간의 친선도모와 단합대회를 겸해서 오늘 11일부터 15일까지 반농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동국생생11호'발간예정

응성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논문 및 문학작품들을 엮은 '동국생생 11호'를 11월말 발간 예정이다. 현재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과 시·소설·수필등을 공모, 접수 중이다.



◇집안 잔치... 선거가 한창인 본교, 하지만 올해는 학우들의 무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 총학·총여학생회 선거가 단독후보로 치뤄지자 여느때 같은 흥분경쟁과 학생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8일 불상앞에서 선거운동원과 학생 30여명만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 장면.(이태훈 기자)

# 단대선거마무리...대부분 단독후보

단과대 선거가 지난 7일 사과대 개표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고 단독 입후보한 총학생회 선거는 오늘(11일)오후 1시 도서관앞에서 3차 마지막 유세를 남겨놓고 있다.

투표결과 야간강좌 총학생회를 제외한 불교대, 문과대들 6개 단과대에서는 단일 후보가 출마해 선출됐으며 공과대는 투표를 미달로 3월 선거로 연기됐다. 그의 생자대, 법대, 이과대는 후보자 미등록으로 모든 선거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각 단과의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과대	당선자	투표율	지지율
불교대	정의석(선2), 허진경(인철·4)	52.5%	84.3%
문과대	유재하(국문·3), 정동수(유리·3)	52.4%	87.3%
사과대	이왕재(사학·3), 이종열(정외·2)	66.0%	92.2%
경상대	양한승(정보·2), 진동호(회계·2)	53.1%	86.3%
사법대	김기희(역교·3), 이종철(국교·3)	57.0%	87.0%
예술대	신현찬(연영·4), 임소희(미술·2)	71.2%	87.6%
야간강좌	김진문(경제·3), 정수민(신방·2)	57.6%	51.4%

(사학3), 이종열(정외2)이 당선됐다.

이것으로 등록한 후보가 없어 학생회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법대』 정·부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기희(역교3), 이종철(국교3)이 당선됐다.

총유권자 9백75명 중 5백5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7%의 투표를 보였고, 이중 4백78명이 찬성하여 87%의 지지를 보였다.

『예술대』 제 10대 예술대 정·부회장 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신현찬(연영4), 임소희(미술2)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3백75명 중 2백67명이 참여해 71.2%의 투표를 보였으며 이중 찬성 2백34표, 반대 27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야간강좌』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김선문(경제3)·정수민(신방2)이 당선됐다. 총유권자 1천8백35명 중 1천57명이 투표에 참여해 57.6%의 투표를 보였고 53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공과대』 제 19대 공과대 정·부회장 선거에 단독입후보한 안세진(산공2)·오정(컴공2)은 투표를 부진으로 낙선했다.

총유권자 2천4백91명 중 9백48명이 투표에 참여해 38.1%의 낮은 투표를 보였으며 미결정 선거는 내년 3월에 재선거를 치루기로 결정됐다.

『생자대』 28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는 지난 18일 29대 학생회 정·부회장 등록마감

# 구속학생 선고공판 진행중 부총학생회장등 4명 실형선고

연세대 범청학원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했다가 구속기소된 황인구(야간영문4)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본교학생 10명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동현(국교4)등 아리연합회 회장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 및 징역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지법은 구속기소된 4백44명 가운데 첫 공판을 29일 시작했으며 본교 학생은 현재 9명에 대한 끝สิ้น이 확정됐다. 현재 황인구 부총학생회, 조달원(수교3) 사법대 학생회장, 최동현 동아리 연합회회장, 윤성진(국문4)군 4명은 징역 2년에서 1년6개월의 구형을 받았으며 김재영(연영3)이 예술대 학생회장, 이국한(신방1), 박병남(무역4), 서지윤(농경제3), 이상인(컴공4)군 등 5명은 징역유예 2년~1년을 선고 받았다. 그밖에 유민우(야간영문3)군 등 2명은 이번주 중에 선고 공판이 치뤄질 예정이다.

# 컴퓨터 교육원 개원 워드·인터넷 사용에 활용 기대

본교 컴퓨터 교육원(원장=홍영식·컴퓨터 공학) 개원식이 지난 10월29일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컴퓨터 실습실에서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95년 7월에 설립된 컴퓨터 교육원은 기존의 PC 386/SX 1백2대를 펜티엄급 PC로 교체하고 PC-패널 등 시화각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한편 각 실습실에 랜(LAN) 공사를 시행했다.

한재 해화관, 개교 90주년 기념문

## ◇제29대 박병제(철4)총대의장 당선자 인터뷰

### “전 학대회 건설에 힘쓸터”

관심이다. 이는 청년학생으로서 올바른 자리찾기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한 학생들에게 변화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선거주체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단과대 대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것도 큰 요인인 것 같다.

— 제29대 총대위원회의 사업방향은...  
= 대의원 교양학교, 소식지 등 일상적인 사업들을 알차게 진행할 것이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건설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학생회 위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학우들의 무관심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학생회와 대의원을 합친형태인 전학대회 건설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 우선 '학생회 위기'라는 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현 상황에 오히려 '전학대회'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총학에 흡수되는 것이기에 그

제29대 총대위원회 선거에 출마한 박병제(철학4), 하계기(경제4)조가 60.4%의 투표율에 1백2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에 제29대 총대의장 당선자 박병제군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았다.

— 당선소감은...  
= 투표율이 저조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나니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선다.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겠다.

— 이번 단과대 선거는 투표율도 저조했고 후보자를 낸 단과대도 세 곳이나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 가장 큰 이유는 학우들의 무

## 학·전·무·대

썩썩 뻘친대!

○...여기도 뻘썩 썩, 저기도 뻘썩 썩.

도서관 열람실에 진열된 책 중에 밑줄이 그어진 책들이 많다는데, 그 색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가지가지.

일부 학생의 무신경함에 책을 열람하는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도서관의 책들을 개인의 책처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다음에 읽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텐데.

책에 꼭 그려진 밑줄도 썩썩 뻘치는 학생들의 짜증.

동국인 6대수칙

○...1.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는 손바닥에 적어서라도 외고 다나라.

2. 위키토기로 대열의 움직임을 수시로 파악하라.

3. 수의들은 정복을 입고 구두까지 깨끗이 닦아라.

4. 교수들은 정장차림에 중국 뱃지를 달아라.

5. 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지켜라.

6. 교정의 차들은 해방로를 떠나라.

이상은 대학총학생회가 동국대학교를 방문할 때 동국인이 지켜야 할 6계명.

명문본

○...월드컵 코리아라는 국민들의 성취에 일·학이나, 한·일이나 공방전은 결승전을 할 수밖에 없게 내어준 채 손에 작은 승리!

보기 좋은 떡 손에 썩은 한국

의 정회장 '만족할 만한 결과'라며 웃고 먹기 좋은 떡 받아 등 일본의 나가사키현의 '풍부'라는 단어를 붙여주었다.

이를 지켜보면 최전무대자 함이다 '우리 언제까지 보기 좋은 떡 모셔두고 고사한 지발건지...'

자포자기

○...다양한 도서, 대량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학교 도서관에 갖추어야 할 조건.

책을 찾기 위해 총대(중앙도서관)에 가면 컴퓨터를 이용해 책고유번호를 알아낸다. 그런데 책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뒤져봐도 찾는 책은 없다.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서고를 갔다와서 하는 말은 다시 잘 찾아보라는 것이다.

책을 찾아 지친 학우들 '컴퓨터가 바이블'에 걸렸으니 그냥 내내두고 사봐라...

국문과 '국문인의 밤'

국어국문학과는 올레로 과 창설 50년을 맞아 오는 15일 소규모 열려서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문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경상학부 '경상학부 한빛제'

이부대 경상학부(회장=정수철·무역3)는 학생들간의 단합과 학기 마감이라는 취지로 지난 9일 '경상학부 한빛제'를 개최했다.

미술학과 과제적

지난 4일부터 2주간 개교90주년 기념 문화관 전시실에서 1, 2, 3학년 학생들의 과제전을 갖는다.

국회 정기공연

극예술연구원(회장=김대원·수학2)는 내일(12일)부터 5일간 학생회관 5층 소극장에서 제38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현역생 정기공연

고전기타동아리 현역생(회장=임원진·컴공2)은 오는 15일 오후6시 중앙당에서 제15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동그라미 사진전

사진연구동아리 동그라미(회장=정희찬·컴공3)가 '동그라미 사진전'을 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명동 유네스코회관 전시실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는 90주년기념 문화관 전시실에서 전시한다.

영상매체비평

‘제1회 인권영화제’의의

이 시대 양심적 목소리를 토로케하는 영화제

인권문제, 온건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제1회 인권영화제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씨네21', '키노'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또한 11월 22일부터는 구미시를 시작으로 약 한달간 전국적인 상영에 들어간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국제 시민 위원회)의 창립 30주년 기념작인 '잊지 말자 Contre l'oubli'를 개막 초정 작으로 하여, 매일 '여성, 그 참담함', '노동자는 싸운다', '평화를 위하여', '소수자의 꿈과 현실', '인권 침해, 그 아픔이 없는 상처', '국가, 그 가면을 쓴 폭력',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 하에 서른 세 편의 영화가 다양한 주제 제기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영화제에 '인권과 영화의 의미'를 되짚어볼 심포지엄이나 세미나가 마련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기는 해도, 한 편 한 편 영화는 관객의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를 재고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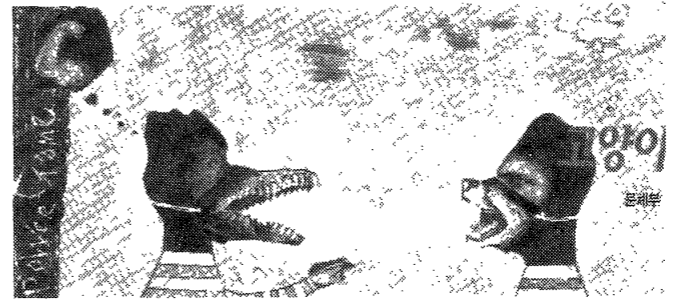
는 신선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다. 각종 사회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동네투이 되는 영화(혹은 비디오), 영화의 태생이 본래부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만한 양심적인 발문을 서둘러 마야버리는 검열과 상업주의, 할리우드 영화 앞에 꿇어배인 이 땅의 무릎들, 이것이 뻗하게 지적되는 우리의 영화 문화 현주소이다. 그런데 영화가 인권의 가치를 쳐두고 우리를 만나러 왔다. 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변하는 인권의 아성이 흠집을 낼 수 있겠는가. 이 야만적인 문명의 세계에서도, 아니 그 더러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서라도 더욱 더, 인간 존엄의 '휴머니즘'은 숭고한 가치이다. 이제 우리 시대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영화가 토로하게끔하는 이 영화제는 여

성, 인종, 민족, 노동 등의 정점을 가지고 박해받는 인간들을 우리 눈앞에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의의를 달고 싶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깨어 일어나게끔 하는 지에 앞서, '전부 인권론에 준거해 일일이 열거된 문제들을 계몽의 일장에서 주체화시킨 것의 한계를 말하고자 한다.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인간 생명 자체의 고귀함도 아니다. 인권은 정치적인 일에서 그 범위가 결정되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자유인 남성만이 인권이 있었다. 여성과 흑인도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 사람대접을 받았다. 여권론 계이-레즈비언에 대해, 왜 지만도 못한 XX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인권이 있다. 배 속의 태아도 존엄한 인간인가, 인락사는 인도 주의적인가 등의 문제, 우리 사회가

새롭게 안고 있는 동남 아시아계 산업연수생과 러시아인 매춘부의 인권 문제 등은 인권을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권리로 생각하고 원해받는 인권을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통해 정당할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방식의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 '잊지 말자', 이 영화는 다채로운 다큐멘터리 양식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프랑스의 대명사들이 힘 모아 만든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프랑스 지국의 역적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여기서 또 의의를 달고 싶다. 그것은 BAND AKD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나 ASR의 'We Are The World.'로부터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못했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한승희**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과정)

심의유감

“공론은 아무 것도 잃은 게 없다”



올들어 문화계는 '사건심의회'에 관한 시비로 인해 부쩍 시끄러워졌다. 지난 6월 7일 '음반에 관한 사전심의의 철폐'에 이어 며칠전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이 난 상황에서, 만화심의를 특별하는 이상기류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화계를 비롯한 대중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분석으로, 먼저 사전심의의 뿌리찾기를 위해 일제 시대로 가야한다. 공론의 사전심의는 바로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극장취체법', '레코드취체법', '조선영화령' 등 각종 법률에서 뿌리내려졌던 것이다. 즉, 그것은 지배권력의 통제수단이었다. 그 후, 88년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연예술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되면서 현상적으론 사전심의 폐지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연법은 문학, 미술, 창작

발표 등에 관한 것이지,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 되는 창작물은 제외시켰다. 이는 '한 장소에서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유로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그럼, 이 시대에 심의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음반에 관한 사전심의는 지난 6월 7일 '자유' 공연과 동시에 사라졌다. 이는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이 91년에 불법으로, 93년에 '92년 장마 종료에서'가 묶이면서 정태춘은 직접 사전심의의 철폐투쟁에 나섰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의 강산에의 '돈' 안치환의 '죽음' 등이 사전심의에 걸렸었다. 그러나 비디오물은 현재 영화사전 심의가 위헌이 됐음에도 여전히 심

의를 받아야할 형편에 있다. 영화사전심의는 대중적인 사전심의의 철폐운동의 결과 지난 4일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9년 장산꽃개의 광주항쟁을 다룬 '오 품의 나라'가 발검행이 매겨지자 91년 감독 홍기선씨가 헌법소원을 제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검열철폐의 대안으로 제시한 완전검검심제, 등급의영화제용관 설치에 대한 논란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각종 예술창작물 사전심의의 철폐바람을 과감히 거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만화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희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함에 따라 만화를 유희매체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만화계는 만화심의철폐추진위원회(위원장=황미나)를 조직, 지난 3일 집회주도등 심의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전심의의 상황에 대해 대중운동평론가 강현씨는 "이제 사후심의로 넘어가면 풍속사범들의 차원에서 문제삼아 제작사는 음반수거의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며 "공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네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기를" 서태지의 시대유감은 부활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시뿐, 그 메시지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박요선 기자)

박재동 첫 장편만화 영화 '오돌또기'

4.3항쟁 토대로한 리얼리즘 애니메이션

오랫동안 묻혀져 왔던 섬 이야기가 있다. 커다란 민족적 비극이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 4.3항쟁. 이 이야기를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첫 장편만화영화작품 '오돌또기'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달 12일까지 서울 충무로 인사동 '백승화랑'과 '나화랑', 그리고 전통시장 '이러가야'에서 4.3항쟁 50주년인 1998년에 발표될 '오돌또기'의 작품설명회와 함께 제작비 금 무려를 위한 특별전시회를 갖는다. 이 전시회에서는 영화에 등장할 대형 배경화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전시하고 영화의 티켓과 셀(영화그림)에메, 그리고 캐릭터 인형과 전시회 포스터, 배경 및 미술감독인 강요배씨의 작품과 홍강욱인 박재동씨의 '한겨레 그림판'영화도 판매하여 영화제작에 드는 약 25억원의 제작비도 충당할 예정이다. '오돌또기'는 달과 산과 바다와 대지의 온갖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일하며 평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주민의 모습을 그린 장민묘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장편만화영화 '오돌또기'는 4월이던 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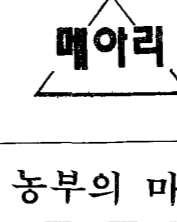


의 노란꽃, 가을이면 익세의 흰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함께 말쑥박박하며 놀던 '동경이' '웬생이' '뽕뽕' '누렁코' '해이' 등의 순수한 아이들에게 4.3이라는 슬픈 역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동시에 이런 역사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증오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화해를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4.3항쟁만이 아닌 1947년부터 1949년 까지의 제주민의 전반적인 삶을 조명하면서 학살·검간·약탈등

말하고 '제주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역사의 비바람을 맞아 흔들리고 쭈이는 모습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인간애와 그로 인한 희망과 좌절, 휴머니즘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화영화의 영역에 첫발을 내딛는 박재동 화백이 4.3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할 수 없다. 그러나 실사영화로도 표현해내기 어려운 4.3항쟁을 사실을 토대로 한 리얼리즘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15일에서 25일까지 '서울아트갤러리'에서 연 장전시되며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제주시 새종갤러리'에서 제주 전시회를 갖는다. (김상만 기자)

▲가을이다. 여름을 잊기도 전에 가을이 찾아왔다. 작년에도 가을은 찾아왔고, 내년에도 가을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가을은 우리에게 없었다. 가을날의 결실은 그 이전 계절에 따라 달랐고 평가도 달랐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가을 흥년을 만났더라도 새로이 다가온 가을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진다. ▲학생회 선거가 또다시 치루어졌다. 1년만에 학생들의 대변인이 될 인물을 새로이 뽑는 것이다. 대학 재부표후에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학생회선거 연기, 대학 단대후보 등록 없음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 모두가 선거 기피증에 걸려버렸다. 선거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거투표에 참여하기도 거부하는 선거기피증, 표본도 선거 결과 다수의 학생회

는 아닌지 반성하여야 했다. ▲을가을 학생회선거분위기는 유난히 차갑다. 연대사태이후 학생들은 학생회와 더욱 멀어졌고, 언론은 이로인해 더욱더 학생회선거 취재에 한한이다. 학생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찾기는 쉽지가 않다. 학생회가 이끌어갈 1년간은 해야할 과업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러기에 학생회활동은 좀더 전문화되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전 학생회를 답습하며 1년을 보내게 될테니 말이다. ▲우리 모두는 농부의 마음이 되어야 했다. 학생회를 지켜보면서 잘 영글어갈수록 어두운 잿배에 학생회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 걸어갈테니 말이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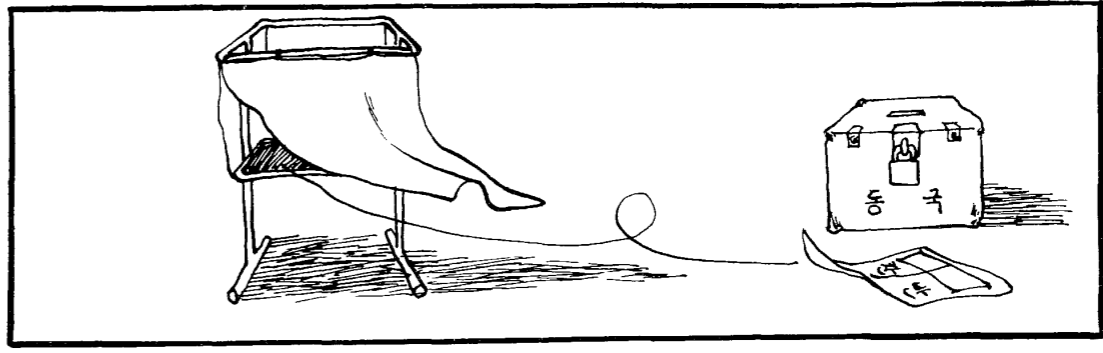
농부의 마음

가 투표율 50%에 겨우 미치지 저조한 투표율과 단일 후보들의 출현만을 나타냈다.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학생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하녀이며, 일반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기성연봉인들의 거만함을 배운 것은 아닌지. 또한 너무나 하나의 생각만으로 말하려 한것



작은데

고대성(7)



교육개혁 실천사업 평가 전국 1위!

한국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에서

미래를 밝힐 참된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최고의 교육연구 시스템 확충, 일산의 첨단과학 캠퍼스조성, 국내최초 양한방 종합병원 건립등 개교 90주년을 맞아 '비전' 동국 100년' 마스터플랜으로 21세기 초일류 대학을 실현하는 동국대학교-올해 교육개혁 실천사업 평가에서도 당당히 전국종합 1위로 선정되어 명문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동국대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참된 미래를 열어 나가십시오!

